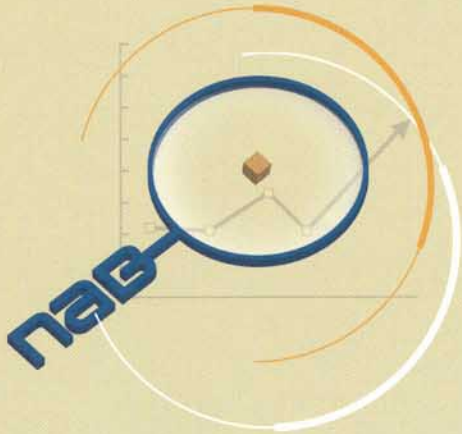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

2004. 8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

2004. 8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국제 유가의 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기조로의 선회 등 세계경제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거시경제 동향을 분석·전망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 산하 국책연구소, 한국은행, 민간연구소 등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작성·발표해 왔으나 국회에서 독자적인 경제전망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처 경제분석실에서 작성하였으며, 국내경제 동향 분석, 해외 주요 국가의 경제 동향, 대외경제 여건 분석, 국내경제의 부문별 전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일정에 맞추어 연간 2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예산 통제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보고서이다 보니 그 내용에서 활용하시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더욱 심도 있고 권위 있는 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최 광

차 례

요 약 / ix

I. 국내경제 동향

1. 실물 부문 / 3

가. 경기·산업활동	3
나. 민간소비	8
다. 고정투자	10

2. 고용·물가 / 12

가. 고용	12
나. 물가	15

3. 금융·외환 / 17

가. 금융	17
나. 원/달러 환율	22

4. 대외거래 / 25

가. 수출·입	25
나. 경상수지	30

5. 재정 / 34

가. 국세세입 실적	34
나. 통합재정수지	36
다. 국가채무	40

II.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1. 해외경제 여건 / 45	
2. 주요국 경제 / 47	
가. 미국경제	47
나. 일본경제	49
다. 유로경제	51
라. 중국경제	53
3. 환율 및 국제 금리 / 55	
가. 환율	55
나. 국제 금리	57
4. 국제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 59	
가. 국제 유가	59
나. 국제 원자재 가격	60

III. 국내경제 전망

1.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전제 / 65	
가. 대외적 여건	65
나. 대내적 여건	66
2. 실물부문 / 68	
가. 민간소비	68
나. 고정투자	70
3. 고용·물가 / 74	
가. 고용	74

나. 물가	74
4. 금융·외환 / 76	
가. 금리	76
나. 원/달러 환율	77
5. 대외거래 / 79	
가. 수출·입	79
나. 경상수지	80

부 록

A. 참고자료 / 85	
A-1. 주요 기관별 2004년 경제 전망 비교	87
A-2. 환율 및 국제 금리 전망	88
A-3. 주요 선진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	89
A-4. NIES와 BRICS의 경제 동향 및 전망	90
B. 통계편 / 89	

요 약

1. 국내경제 동향

국내경제는 실질 GDP 성장률이 지난해 2/4분기 2.2%를 저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 1/4분기에는 5.3%를 기록함에 따라 경제지표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다. 재고출하순환도상으로도 지난해 4/4분기 이후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출하 증가세가 확대되는 전형적인 경기회복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5월 이후 수출 및 건설투자관련 구성지표의 전월 대비 감소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추세치 100 이하로 하락하여 경기회복세가 정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경기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경기가 재차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표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가계 및 기업의 체감경기는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이후 금년 들어서도 1/4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여 4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보합세를 보이던 도·소매판매는 2/4분기중(-0.3%)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어 올해 들어와서도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실질임금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가계신용의 조정 과정에서의 유동성 제약과 신용 불량자의 확산 등 민간부문의 실질구매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올해 1/4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여 작년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5월 이후 설비투자추계치

가 상승세로 반전하는 등 최근 들어 설비투자가 미약하게나마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올해 1/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7.6%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재정의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 건설투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올해 상반기중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 수의 증가로 2004년 2/4분기 현재 실업률은 3.3%로 작년 2/4분기(3.3%)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계절조정 기준 실업률(3.5%)로는 전 분기(3.4%)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기 대비 0.4% 포인트 상승했으며,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어 청년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급등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금년 1/4분기와 2/4분기 중 각각 전기 대비 1.5%, 0.7%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가격 급등으로 1/4분기와 2/4분기 중 각각 전기 대비 3.1%, 1.7% 급등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요통화지표는 내수부진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시중자금이 단기상품에 몰리고 있어 신M1 증가율이 높은 반면, M2 및 M3은 보험세를 기록하였다. 금리는 단기자산 및 국공채 선호,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환율은 작년 말부터 외환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등락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적인 수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상반기중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한 1,232억 9천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IT상품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수입은 수출 호조에 따른 반도체, 기계류의 수입 증가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지속으로 상반기중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1,080억 2천만달러를 기록하

였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소득·이전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폭의 확대로 상반기중 132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상반기중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91억달러로 지난해 상반기(70억달러 흑자)에 비해 121억달러가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2003년도 국제수입실적은 114조 6,642억 원으로 예산대비로는 0.2% 감소하였고, 2002년도 실적대비로는 10.3% 증가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8.1조원 흑자를 기록하여 2002년의 22.7조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14.6조원 감소하였다. 이처럼 흑자규모가 감소한 것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출연 등에 기인한다. 2003년 말 현재 IMF기준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2조 960억 원 증가한 165조 7,090억 원으로 GDP대비 23.5% 수준이다. 2003년에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채발행잔액이 전년에 비해 27.5조원이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 해외경제 여건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까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세계경제는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3년에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미국경제는 생산호조와 고용사정의 개선 등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에 걸쳐 시행된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정책 등의 효과가 소진되고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로경제는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유로화 약세로 수출이 증가하고, 또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에 2.7%의 성장률을 보였던 일본경제는 수출호조, 설비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2004년에도 경기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다. 2003년에 9.1%의 경제성장을 보였던 중국경제는 2004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투자억제 시책에 따라 수출, 소비, 그리고 투자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작년에 비해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기여 해온 IT 경기의 호황은 최소한 올해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T 경기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북미 반도체산업의 주문/출하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 연말경까지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LCD와 휴대폰의 경우는 경쟁격화와 공급확대로 수출여건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달러화는 금년 들어 지속적인 약세에서 벗어나 혼조세를 보였다. 올해 1/4분기의 엔/달러 환율은 평균 107.0엔으로 지난 4/4분기 평균 108.8엔보다 다소 약세를 보였으나 2/4분기에는 108.6엔으로 다소 강세 기조로 전환되었다. 유로화에 대해 미 달러화는 전분기의 지속적인 약세가 진정되면서 최근 강세를 시험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적자, 즉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는 한 미 정책당국의 달러화 약세 정책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국제 금리는 하향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미국의 단기 재정증권(3개월 만기)은 올해 1월 최저수준인 0.92%를 기록한 이래 완만하게 상승하여 6월말에는 1.29%에 이르고 있다. 향후 국제 금리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나, 각국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배럴당 40달러(WTI 기준)를 넘어서는 최근의 고유가는 물가, 생산, 수출 등에 영향을 끼치면서 향후 국내경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제 원유시장은 지난 6월 OPEC의 산유량 증산 결정 등으로 인해 수급측면에서는 초과공급 상태에 있는데, 경기회복으로 인한 석유소비 증대 가능성, 중동의 지정

학적 위험요인 상존, 러시아의 유코스 사태 등이 향후 유가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경제 전망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회복세로 하반기에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긴축정책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등한 수출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으로 인하여 수출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면, 하반기 중 실질 GDP 성장률은 상반기(5.3%)에 비해 둔화된 4.7%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연평균으로는 실질 GDP 성장률이 5.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물가 오름세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의 약화, 자산소득의 감소,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여력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 중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지연되어 연간 0.3%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설비투자 조정압력의 증가로 호전될 여건이 조성되고는 있으나, 기업경영의 보수화 경향과 전반적인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올해 하반기중에도 기술적 반등 이상의 실질적인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연간으로 2.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와 SOC 투자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올해 하반기 건설투자는 지난해 하반기(7.6%)에 비해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1.8%)되어, 연간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고용 유발효과가 큰 내수 부문의 상대적 부진으로 고용 여건의 개선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미약하지만, 고유가 지속 및 공공요금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급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작용하여 하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3.9%,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는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양호한 수급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국고채 유통수익률(3년만기) 기준으로 하반기 4.2%, 연 평균 4.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따른 달러화약세 기조 유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하반기에는 달러당 1,140원, 연평균 1,153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과 IT 품목 수출 증가로 하반기 19.1%, 연간 2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수출호조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확대,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인해 하반기 22.4%, 연간 2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지 흑자 폭의 축소와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의 지속으로 올해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반기의 132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된 63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1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국내경제 전망

	2002	2003	2004				
	연간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7.0	3.1	5.3	5.3	5.3	4.7	5.0
민간소비 (%)	7.9	-1.4	-1.4	-1.5	-1.4	2.1	0.3
설비투자 (%)	7.5	-1.5	-0.3	1.0	0.4	5.5	2.9
건설투자 (%)	5.3	7.6	4.1	3.5	3.8	1.8	2.8
경상수지 (억US\$)	54	123	61	71	132	63	195
수출 (% , 통관기준)	8.0	19.3	37.7	39.0	38.4	19.1	28.1
수입 (% , 통관기준)	7.8	17.5	19.2	32.6	25.7	22.4	23.9
소비자물가 (%)	2.7	3.6	3.3	3.3	3.3	3.9	3.6
실업률 (%)	3.1	3.4	3.8	3.3	3.6	3.4	3.5
국고채수익률 (% , 평균)	5.8	4.6	4.8	4.4	4.6	4.2	4.4
원/달러 환율 (평균)	1,252	1,192	1,172	1,162	1,167	1,140	1,153

주: 국고채수익률은 3년만기 유통수익률임

I

국내경제 동향

1. 실물 부문
2. 고용·물가
3. 금융·외환
4. 대외거래
5. 재정

1. 실물 부문

가. 경기·산업활동

2003년중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에다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극심한 위축으로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3.1%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전년 대비 15.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민간소비(-1.4%)와 설비투자(-1.5%)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건설투자는 전반적인 내수부진 속에서도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7.6%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생산활동별로 살펴보면 내수경기의 침체로 서비스업은 1.8%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제조업(4.8%)과 건설업(8.1%)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1] 국내총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국내총생산	7.0	3.7	2.2	2.4	3.9	3.1	5.3	
제조업	7.6	5.1	2.6	3.3	8.0	4.8	12.1	
건설업	2.8	8.4	7.7	8.1	8.4	8.1	4.5	
서비스업	7.8	1.9	1.1	1.6	2.4	1.8	1.6	
민간소비	7.9	0.3	-1.8	-1.9	-2.2	-1.4	-1.4	
설비투자	7.5	1.9	-0.6	-5.0	-2.4	-1.5	-0.3	
건설투자	5.3	8.0	7.3	7.9	7.4	7.6	4.1	
수출	13.3	15.9	8.4	14.9	23.1	15.7	26.9	
수입	15.2	14.2	5.2	7.7	11.7	9.7	11.8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올해 들어 1/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여 작년 2/4분기 (2.2%) 이후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 및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1/4분기 중 최종수요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율(104.9%)은 4분기 연속 10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내수의 성장기여율(-4.9%)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최근의 경제 성장이 수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최종수요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내수	57.3	30.1	-24.9	-17.7	-4.7	1.8	-4.9
민간소비	36.3	1.9	-35.9	-20.1	-13.0	-12.0	-6.7
설비투자	7.1	2.4	-2.6	-10.6	-3.0	-2.7	-0.3
건설투자	7.6	11.6	46.7	25.6	15.6	19.6	5.0
수출	42.7	69.9	124.9	117.7	104.7	98.2	104.9

자료: 한국은행

지난해 5.1% 증가하는 데 그쳤던 산업생산은 올해 들어 수출 호조세 지속에 힘입어 상반기중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출하는 상반기중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수출용 출하는 20%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내수용 출하는 3.0% 증가하는데 그쳐 수출과 내수 경기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었다. 2/4분기중 서비스생산은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쳐 서비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표 3] 산업활동 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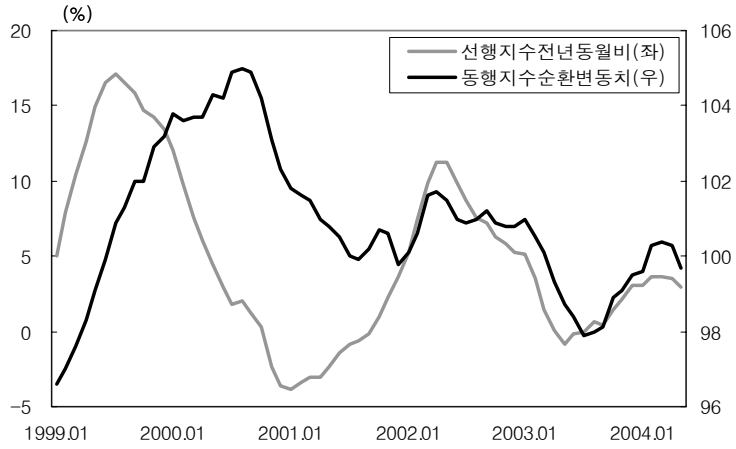
	2002	2003				연간	2004	
	연간	1/4	2/4	3/4	4/4		1/4	2/4
산업생산지수	8.0	6.1	3.2	3.2	7.8	5.1	11.0	12.3
출하지수	7.9	4.5	2.8	2.5	6.8	4.2	9.9	10.5
내수출하	8.0	2.7	-1.0	-2.4	0.7	0.1	3.0	3.0
수출출하	7.7	7.9	10.7	11.9	18.5	12.5	22.4	23.7
재고지수	-0.8	9.6	9.2	8.1	5.7	5.7	4.2	3.0
평균가동률	78.4	78.5	77.3	76.9	80.4	78.3	81.5	80.5
서비스생산지수	9.8	3.2	1.1	0.6	0.4	1.3	0.8	0.1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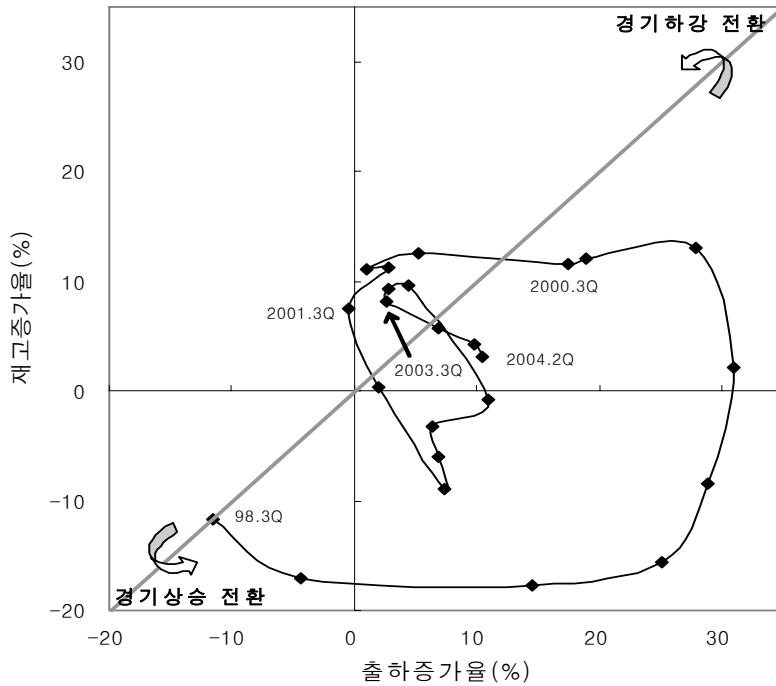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실질 GDP가 작년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8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는 등 경기지표상으로 국내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국면에 진입하였다. 재고출하순환도(그림 2)상으로도 2003년 4/4분기 이후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출하 증가세가 확대되는 전형적인 경기회복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작년 3/4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4/4분기부터 경기회복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5월 이후 수출 및 건설투자 관련 구성 지표의 전월 대비 감소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추세치 100 이하로 하락하여 경기회복세가 정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경기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경기가 재차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 경기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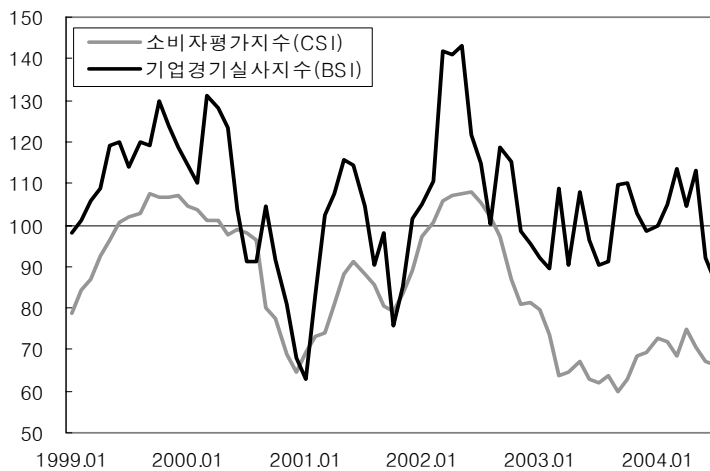


[그림 2] 재고출하 순환도



지표 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가계 및 기업의 체감경기는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올해 6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어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고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CSI)²⁾도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여 기업 및 가계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

[그림 3] 소비자평가지수 및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



-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가 100 이상이면 금월의 경기가 전월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함.
- 2) 소비자평가지수 100은 현재의 경기, 생활 형편 등에 대해 6개월 전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 비중과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 비중이 같은 수준임을 의미하며 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 비중이 높다는 의미임.

나. 민간소비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4%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여건의 악화와 임금상승세의 둔화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되고, 정책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정책과 금융기관의 가계여신 관리 강화로 가계의 차입 여건이 악화되었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에 편승한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의 부작용으로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불량자 수가 확산되는 등 가계부문의 부실이 확대된 것도 지난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민간소비는 1/4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여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도·소매 판매는 자동차 및 백화점 판매의 부진으로 2/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내구소비재 출하의 부진으로 6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 4] 소비 지표 동향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민간소비	7.9	0.3	-1.8	-1.9	-2.2	-1.4	-1.4	-
내구재	9.5	-7.4	-16.1	-18.0	-13.0	-13.6	-9.3	-
준내구재	11.0	-4.0	-11.5	-12.8	-3.1	-7.7	-4.9	-
비내구재	2.7	-0.2	-1.5	-2.3	-2.8	-1.7	-1.7	-
서비스	8.0	1.5	1.8	1.4	0.1	1.2	0.4	-
도·소매 판매	8.3	1.5	-1.7	-2.3	-2.0	-1.0	0.1	-0.3
도매	6.8	2.2	-0.7	-0.1	-0.8	0.2	2.9	0.5
소매	8.2	-0.9	-3.8	-2.1	-2.1	-2.0	-1.8	-0.7
백화점	4.5	-2.5	-4.7	-8.4	-8.6	-6.1	-9.8	-8.0
대형할인점	20.9	10.1	6.3	8.1	7.1	8.6	7.0	7.7
자동차/연료	14.4	4.2	-0.7	-10.5	-6.9	-3.7	-6.6	-2.6
소비재 출하	8.1	-2.8	-8.0	-7.0	-6.1	-5.9	-2.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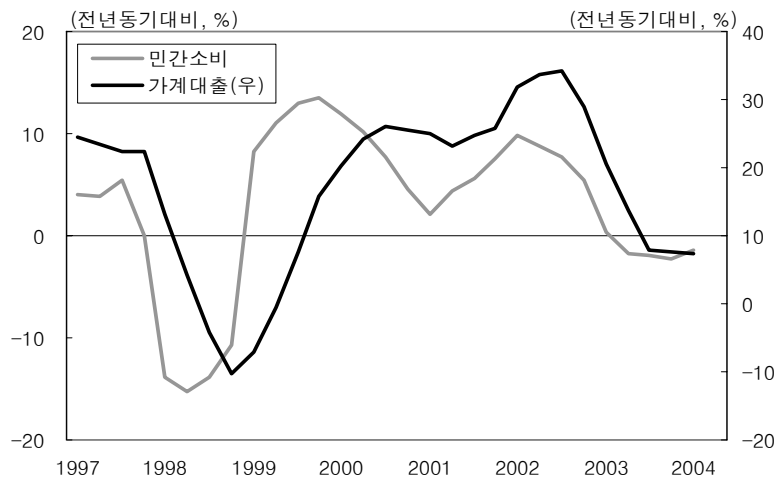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올해 들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지난해보다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실질임금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가계신용의 조정 과정에서의 유동성 제약과 신용불량자의 확산 등 가계 부문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액급여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성과급의 감소로 올 1/4분기 중 근로자(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쳐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되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 자릿수로 둔화되어 올해 1/4분기 중 가계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가계의 차입여건이 악화된 점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기관의 가계대출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축소 및 수수료 인상의 영향으로 올해 1/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하여 2002년 4/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4] 민간소비 및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다. 고정투자

(1) 설비투자

2003년 중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5%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 노사분규, 정국불안 등 대내·외 불안요인, 그리고 신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1/4분기중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여 지난해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4분기중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반도체 제조장비, 정밀기기 등의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반면,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는 도·소매업과 운송업종의 경기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8% 감소하여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5월 이후 설비투자추계치 증가율이 상승세로 반전하여 2/4분기 들어 설비투자가 미약하게나마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표 5] 설비투자 동향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설비투자	6.8	1.9	-0.6	-5.0	-2.4	-1.5	-0.3	-
기계류	6.6	3.1	2.1	0.8	1.7	1.9	5.5	-
운수장비	7.7	-1.6	-9.1	-23.0	-16.0	-12.4	-18.8	-
설비투자추계	8.4	2.6	0.2	-6.4	-5.3	-2.3	-3.8	2.6
국내기계수주	21.0	-16.8	-3.4	-7.5	-5.0	-8.5	19.0	18.6
공공부문	-0.9	-77.6	16.8	15.9	14.2	-32.5	69.4	79.8
민간부문	25.2	3.3	-4.8	-10.3	-7.1	-4.8	15.4	13.5
기계류 내수출하	9.4	2.9	0.5	-2.8	-4.2	-1.1	-2.3	-1.2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 건설투자

지난해 건설투자는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민간부문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건설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한 데 힘입어 전년 대비 7.6%의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는 1/4분기중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는 데 그쳐 2003년의 7.6%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상반기중 건설기성액은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의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건설자재 가격 상승 및 자재 수급난 등이 건설투자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올해 들어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의 건설수주 부진으로 6개월 연속 감소하여 건설투자가 둔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표 6] 건설투자 동향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건설투자	3.3	8.0	7.3	7.9	7.4	7.6	4.1	-
건물건설	14.4	15.7	13.2	15.3	13.8	14.4	6.9	-
토목건설	-6.7	-5.4	-0.5	-2.4	0.1	-1.5	-1.8	-
건설기성액	11.2	20.7	18.4	17.9	18.6	18.8	9.8	10.6
공공부문	-8.1	13.7	9.1	14.0	21.1	14.8	-0.8	5.5
민간부문	24.5	24.8	24.9	21.4	18.9	22.2	16.3	13.1
국내건설수주	33.0	3.3	50.5	47.6	2.1	22.5	-14.2	-27.7
공공부문	-1.1	-12.8	25.9	30.9	-10.7	2.8	21.9	29.4
민간부문	59.2	6.6	52.4	57.0	17.2	31.6	-22.2	-27.5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 고용 · 물가

가. 고용

2003년 국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는 2,214만명으로 전년 대비 3만명이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설비투자의 장기 침체로 제조업의 고용여건이 악화된 데다 내수부진으로 도·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높은 임금수준과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 등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기업의 신규 고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취업자 수의 감소로 지난해 실업률은 2002년의 3.1% 보다 0.3% 포인트 높은 3.4%를 기록하였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고용 조정이 용이한 임시·일용직의 고용은 줄고 경력직을 중심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수는 늘어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50%대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중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경제활동인구 수의 증가로 2004년 2/4분기 현재 실업률은 3.3%로 작년 2/4분기(3.3%)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계절조정 기준 실업률(3.5%)로는 전 분기(3.4%)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2/4분기중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기(7.3%) 대비 0.4% 포인트 상승했으며,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어 청년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표 7] 고용 동향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2,877 (2.1)	22,439 (0.4)	23,055 (-0.2)	23,050 (-0.1)	23,119 (0.6)	22,916 (0.2)	22,982 (2.4)	23,531 (2.1)
취업자 (증가율)	22,169 (2.8)	21,633 (0.6)	22,303 (-0.5)	22,295 (-0.5)	22,325 (0.0)	22,139 (-0.1)	22,104 (2.2)	22,744 (2.0)
실업자 (증가율)	708 (-16.2)	806 (-2.8)	755 (9.0)	756 (16.0)	794 (19.8)	777 (9.7)	878 (8.9)	787 (4.8)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4,266 (0.0)	14,755 (1.9)	14,243 (3.2)	14,341 (2.8)	14,357 (1.8)	14,424 (2.4)	14,595 (-1.1)	14,141 (-0.7)
경제활동참가율	61.9	60.3	61.8	61.6	61.7	61.4	61.2	62.5
실업률 (계절조정)	3.1	3.6 (3.1)	3.3 (3.4)	3.3 (3.5)	3.4 (3.6)	3.4	3.8 (3.4)	3.3 (3.5)
상용근로자	6,862 (2.2) [48.4]	7,176 (6.3) [50.6]	7,250 (5.8) [50.0]	7,268 (5.7) [50.6]	7,383 (6.1) [50.6]	7,269 (5.9) [50.5]	7,460 (4.0) [51.0]	7,586 (4.6) [50.6]
임시·일용 근로자	7,319 (5.4) [51.6]	6,992 (-1.6) [49.4]	7,259 (-1.9) [50.0]	7,088 (-3.7) [49.4]	7,194 (-3.2) [49.4]	7,134 (-2.5) [49.5]	7,154 (2.3) [49.0]	7,396 (1.9) [49.4]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안의 수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중

자료: 통계청

2003년 중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12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다. 연초에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정액급여도 9%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2002년(11.2%)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4분기중 명목임금 상승률은 3.9%를 기록하여 지난해에 비해 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의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경기 침체의 여파로 상여금 등 특별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제조업(6.2%)의 임금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건설업(4.3%)과 도소매업

중(2.8%)의 임금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어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하는데 그쳤다. 4월중에도 명목임금 상승률이 4.8% 증가하는 데 그쳐, 작년 4월 (8.1%)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올해 6월까지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5.4%로 전년 동기 대비 1.3% 포인트 하락하여 올해 임금상승률이 둔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8] 임금 동향

(단위: 천원/월,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임금(전산업)	1,948 (11.2)	2,102 (12.9)	2,014 (8.3)	2,165 (8.6)	2,227 (7.3)	2,127 (9.2)	2,185 (3.9)	2,109 (4.8)
정액급여	1,408 (12.1)	1,494 (9.0)	1,513 (8.4)	1,536 (8.6)	1,583 (9.0)	1,532 (8.8)	1,599 (7.0)	1,598 (6.3)
초과급여	12.6 (-3.9)	128 (9.3)	135 (6.5)	133 (4.7)	145 (8.5)	135 (7.3)	132 (3.1)	126 (4.2)
특별급여	413 (13.4)	481 (28.5)	366 (8.4)	496 (9.7)	499 (2.0)	460 (11.4)	455 (-5.4)	375 (-1.0)
임금(제조업)	1,857 (11.9)	1,984 (13.7)	1,873 (7.2)	2,056 (7.7)	2,155 (6.3)	2,018 (8.7)	2,108 (6.2)	2,035 (8.1)
임금(건설업)	1,859 (10.2)	2,058 (14.7)	1,937 (9.3)	2,144 (11.0)	2,152 (11.1)	2,072 (11.5)	2,147 (4.3)	2,030 (5.4)
실질임금상승률	8.2	8.5	4.7	5.3	3.7	5.5	0.6	1.5
노동생산성	10.7	7.7	7.5	7.4	9.9	8.4	-	-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노동부, 통계청

나. 물가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내수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비용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표 9]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근 동향
수요 측면	소비	가계부채 부담과 가계신용 축소로 소비심리 위축되어 부진
	투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 위축되어 부진
	건설투자	건설자재 가격상승과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로 상승 둔화
	수출	중국 및 세계경기 회복으로 5대 수출품목 높은 증가세
공급 측면	유가	중동의 테러위협 증가 등으로 큰 폭 상승
	부동산가격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안정세
	임금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와 노동수요 감소로 안정세
	공공요금	현재 안정세에 있으나 하반기 추가인상 예상

소비자 물가는 2003년중 전년 대비 3.6% 상승하여 2002년(2.7%)에 비하여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여름 태풍과 장마피해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연간 5.9%가 오르고, 집세와 개인서비스 가격도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2004년에 들어와서도 상승세는 지속되어 2004년 1/4분기중 전기 대비 1.5% 상승하였다. 이는 1/4분기중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및 서비스 요금이 증가하였고,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외부공급충격(cost-push)으로 공업제품 가격도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세가 둔화되어 2/4분기 상승률은 0.7%를

기록하였다. 이는 1/4분기 물가상승을 견인했던 채소 등의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공공서비스의 가격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근원물가지수는 1/4분기 1.1%, 2/4분기 1.0%의 상승률을 보였다.

생산자 물가는 2003년중 전년 대비 2.2% 상승하여 지난 2002년(-0.3%)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이는 태풍 등으로 인해 농림수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석유제품이 큰 폭으로 오른데 따른 것이다. 2004년 들어와서는 1/4분기에는 3.1%, 2/4분기에는 1.7% 상승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표 10] 물가 추이

(단위: %)

물가지수	2002	2003					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소비자물가	2.7	1.8 (4.1)	0.6 (3.3)	0.3 (3.2)	0.9 (3.5)	3.6	1.5 (3.3)	0.7 (3.3)
근원물가 ¹⁾	3.0	1.1 (3.2)	1.0 (3.2)	0.3 (3.1)	0.3 (2.8)	3.1	1.1 (2.7)	1.0 (2.7)
생산자물가	-0.3	1.5	-0.2	0.1	1.2	3.1	3.1	1.7
농축수산물	(6.2)	5.7	-1.7	2.2	4.8	(5.9)	3.1	0.1
공업제품	(1.7)	1.2	-0.4	-0.5	0.4	(2.4)	1.6	0.6
집세	(5.8)	0.7	1.0	0.7	0.5	(3.6)	0.4	0.2
공공서비스	(-1.3)	1.4	1.7	-0.2	-0.5	(2.5)	1.3	0.5
개인서비스	(3.7)	1.6	1.8	0.6	0.5	(4.5)	1.3	1.7

주: 1) 근원물가란 일시적 외부 충격(석유파동, 이상기후, 제도변화 등)에 의한 물가변동을 제거하고 난 후의 기초적인 장기물가수준을 말함.

1. 전기(년, 월) 대비 증가율
2.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3. 금융·외환

가. 금융

2003년 금융시장은 상반기중 신용카드사의 부실위기와 SK회계부정사건, 이라크전쟁 등으로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550포인트까지 하락하고 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불안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 들어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 이라크전쟁 미국의 승리 등 국제정세가 진정되고 정부의 강력한 자금시장 안정화대책과 더불어 세계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고 금융시장 불안감도 다소 희석되는 양상을 보였다.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과도한 가계부채문제는 2003년말 447조 6천억원에 머물러 2002년말의 439조원에 비해 1.9% 증가하는 데 그쳐 가계부채 증가세는 현저하게 둔화되어 추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년 들어서도 400조원에 달하는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현상은 여전한 가운데 유가가 급등하고 내수부진이 예상외로 장기화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내에 내재하고 있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전반적인 하락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2003년 주요 통화지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02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들어 신M1과 M3 등 일부 통화지표들이 상반기중 약간의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신M1 증가율을 제외하고는 주요통화증가율이 2003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본원통화 증가율이 2003년 전년 대비 6.5%로 2002년의 14.3%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04년 들어 1/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하여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2/4분기에는 다시 4.4%로 급락하였다.

특히 신M1증가율의 2003년중 하락세가 두드러져 2002년의 전년 대비 22.5%에 비해 1/3 수준도 안 되는 6.9%로 급락하였다. 총유동성을 나타내는 M3증가율도 2002년중 전년대비 12.9%에서 2003년에는 8.8%로 하락하였다. M3증가율은 2003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4년 들어서는 해외 부문의 통화공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에서의 통화환수로 인해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M1증가율은 2004년 들어서 다소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중자금의 MMF 등 단기상품으로의 유입이 크게 느는 이른바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11]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본원통화	14.3	7.9	7.2	6.4	4.7	6.5	6.9	4.4
신M1	22.5	10.3	5.5	6.6	5.4	6.9	7.3	9.3
신M2	11.5	13.1	9.1	6.5	3.3	7.9	2.6	3.7
M3	12.9	12.4	9.6	8.0	5.4	8.8	5.1	5.8

주: 평잔기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2) 금리의 하향 안정화

2003년중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2002년 연평균 5.8%에 비해 1.2% 포인트나 하락한 연평균 4.6%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졌다. 연초부터 국내 경기 부진으로 하락하던 국고채수익률은 2/4분기에는 4.3%까지 하락했으며 6월 중순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3.95%까지 하락하였다. 하반기 들어 국고채수익률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국내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8월초에는 4.75%까지 상승하였다가 10월초 4% 이하로 하락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4/4분기 평균으로 4.7%를 기록하였다. 2003년중 국고채수익률을 비롯한 시장금리는 시장수급상황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연간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러한 금리 하락세에는 한국은행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단기금리목표를 0.25% 포인트씩 인하한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2004년 들어 국고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국채선물 만기에 따른 외국인의 국채선물 청산 및 롤오버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하기도 하였으나 양호한 수급여건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다. 2004년 상반기중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예상외로 부진한 가운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미국의 국채수익률과는 반대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국고채 수익률은 하향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6월 들어서는 중국의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경우 콜금리 목표치가 하향조정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국고채 수익률의 추가적 하락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3년 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도 연평균기준으로 2002년 6.6%에서 2003년에는 5.4%로 1.2%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국고채수익률과 비슷한 패턴의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회사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물량이 적어 회사채수익률이 2003년중 등락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2004년 들어 회사채유통수익률은 1월 월평균 5.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6월에는 4% 대에 진입하여 급락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과거 미국금리와 동조화 현상을 보였던 국내금리가 최근 세계적인 금리상승 기조에 역행하여 디커플링 현상을 띠는 것은 국내채권시장 수급여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국고채수익률의 경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확대되어 국고채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국고채 발행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수급불균형이 나타나면서 국고채수익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미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 등,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졌지만 국내에서는 국고채수익률과 회사채유통수익률의 하락세

가 이어진 것은 경제 기초 여건보다는 수급불균형에 기인하는 바 크다.

한편, 단기시장금리를 대표하는 CD유통수익률은 올해 1월중 월평균 4.3%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4분기중 기간평균으로 3.9%를 기록하면서 3% 대에 진입하였으며, 콜금리는 2003년 말 이후 3.8%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표 12] 시중 자금사정 동향

(단위: %)

	2002	2003					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콜금리(1일)	4.18	4.27	4.10	3.76	3.76	3.97	3.76	3.76
CD(91일물)	4.81	4.62	4.43	3.96	4.17	4.31	4.09	3.91
회사채(3년)	6.56	5.39	5.31	5.59	5.44	5.43	5.56	5.09
국고채(3년)	5.78	4.82	4.31	4.41	4.64	4.55	4.76	4.40

주: 월평균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3) 큰 폭의 주가 변동

2003년 연초 630선에서 출발했던 종합주가지수는 3월 중순 SK회계부정사건과 신용카드사의 부실위험 및 이라크 전쟁 임박 등으로 2001년 9·11사태 이후 최저수준인 515선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이라크 전쟁 승리와 하반기 수출 급증 등으로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종합주가지수는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하여 연말에는 810선까지 상승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약 5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2003년중 총 12조 5,000억원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되어 2002년중 2조 5,500억원이 순유출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2004년 들어서도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져 연초 820선에서 출발한

종합주가지수는 4월 23일에는 936선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4월말 경부터 국제유가의 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중국의 긴축정책 발표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해외 발 악재가 겹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한 달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약 22%나 하락하는 폭락장세를 보였다. 이후 7월말 현재까지 해외변수 및 외국인의 매매형태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700선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2003년 10월 464.8 포인트를 기록한 이래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해 4월중에는 평균 453.47 포인트로 반등하였으나, 4월말 이후 국제유가 급등 등 해외 발 악재로 인해 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여 7월말 현재 324.71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표 13] 주가 동향

(단위: 포인트, 만주, 억원)

	2003		2004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종합주가지수	789.1 (796.2)	801.2 (810.7)	845.5 (848.5)	867.5 (883.4)	875.6 (880.5)	907.1 (862.8)	798.8 (803.8)	771.6 (785.8)
주식거래량	56,068	43,697	42,405	48,298	43,871	43,898	35,531	38,254
주식거래대금	26,986	24,443	27,495	26,162	25,539	28,959	25,719	20,301
외국인순매수	18,176	10,628	40,439	13,693	28,890	14,529	8,549	152
고객예탁금	95,363	95,437	96,241	92,060	88,690	103,866	87,452	85,312
코스닥지수(기말)	458.4	448.7	441.5	428.7	434.2	453.5	400.9	3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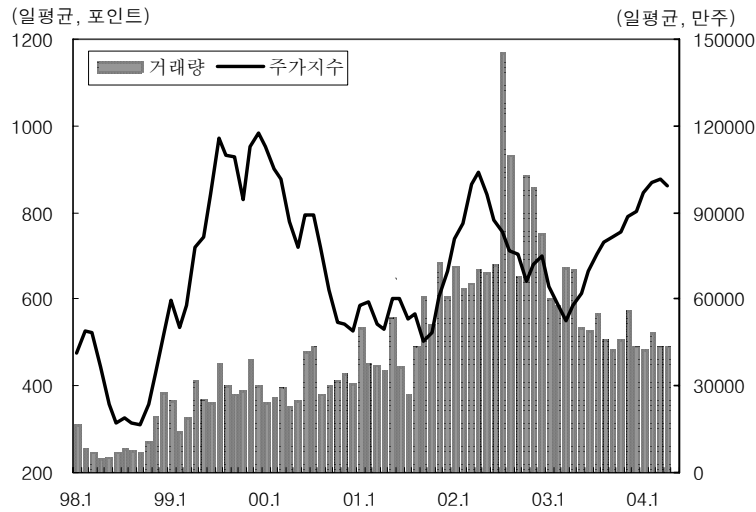
주: 1. ()는 기말 수치임.

2. 주가지수, 주식거래량, 거래대금은 월평균임.

3. 외국인 순매수는 월중누계, 고객예탁금은 월말기준임.

자료: 증권거래소

[그림 6] 주가지수 및 거래량 추이



나.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은 기말기준으로 볼 때 2003년말 1,198원을 기록하여 2002년 말과 비교하여 불과 2원 하락하는 데 그쳤으나 평균적으로는 2003년 중 1,192원을 기록하여 2002년도 1,251원에 비해 평균 4.7%나 하락하였다. 2003년 상반기 중에는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고조와 유가상승 등 대외적 요인과 신용카드사 부실문제, SK 회계부정사건 등 국내 악재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4월 초에는 한때 1,258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분기 평균으로 원/달러 환율은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1,202원, 1,209원을 기록하여 1,200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들어 국내경기가 매우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여 원/달러 환율은 10월 중순경에는 연중 최저수준인 1,147원까지 하락하였다.

국내 기초경제 여건과 상반되게 하반기 이후 원화가치가 상승한 것은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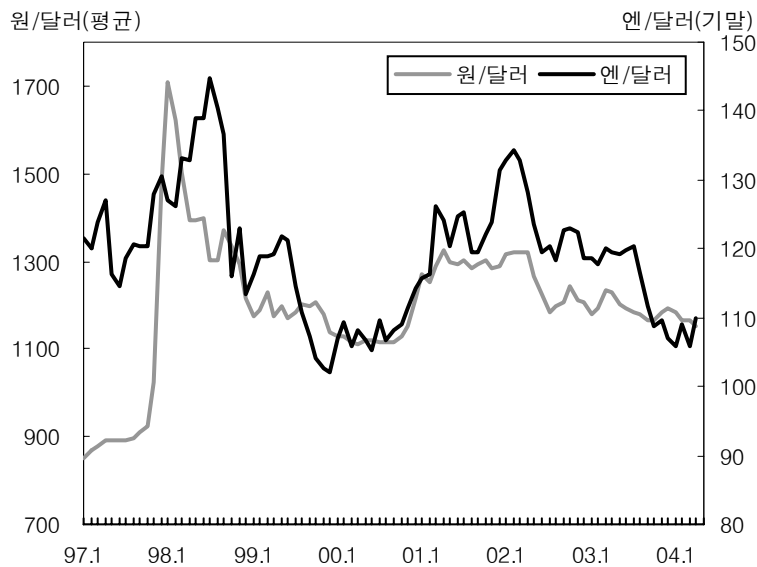
외환시장에서의 미국 달러화의 가치하락에 기인하는 바 크다. 특히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의 테러위협 등의 비경제적 요인 외에도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달러화가 미국의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고평가되었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미달러화 가치가 평가절하되었고 이는 미달러화 가치에 연동되어 있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2003년

[표 14] 주요통화 환율 추이

		2002	2003					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원/달러	평균	1,251	1,202	1,209	1,176	1,181	1,192	1,172	1,163
	기말	1,200	1,253	1,193	1,150	1,198	1,198	1,147	1,156
엔/달러	평균	125.3	118.9	118.5	117.5	108.8	115.9	107.0	109.6
	기말	118.5	119.7	119.8	111.1	106.9	106.9	104.9	109.7

자료: 한국은행

[그림 7] 환율변동 추이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와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입으로 달러화의 공급이 늘어난 점 역시 원화의 평가절상 요인 작용하였다. 사실 2003년 하반기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요인만 놓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압력은 실제 하락 폭보다 훨씬 컸으나 내수부진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

2004년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1,140~1,195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가 국제외환시장에서 조정을 받음에 따라 월평균 1,172원을 기록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4월에는 월평균 1,151원으로 원화강세 추이가 이어졌다. 이는 매월 20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지속으로 외환 공급 우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말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인상 및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긴축정책 발언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환율은 상승세로 반전하여 7월말 현재 1,170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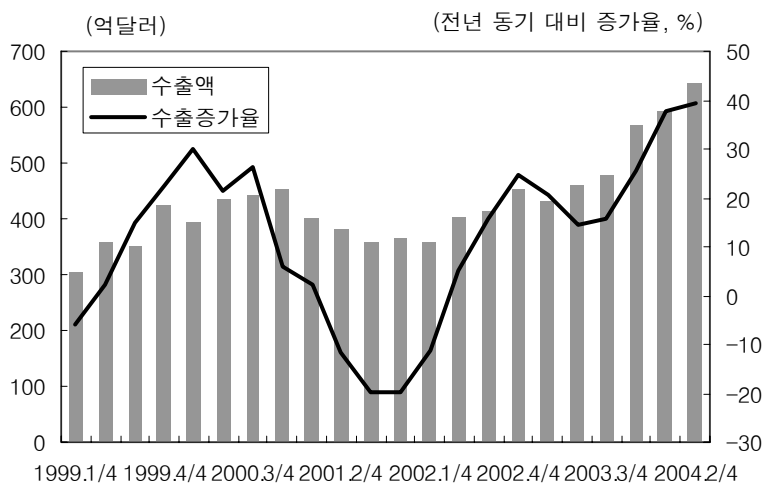
4. 대외거래

가. 수출·입

(1) 수출

2003년중 수출은 1,938억 2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여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등 5대 수출품목이 수출을 주도하였고,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중국·일본·홍콩·ASEAN·EU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1/4분기중 수출은 미국·일본 등 주요 해외시장의 경기회복세에 의한 수요증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한 593억달러를 기록하여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4년 2/4분기중에는 중국의 긴축정책,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IT 상품이 수출증가세를 주도하여 전년 동기 대비 39.0% 증가한 640억 2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8] 수출 및 수출증가율 추이



품목별로 지난해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직물과 의류를 제외한 경공업제품, 중화학공업제품 등 모든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반도체(17.5%), 자동차(29.4%), 무선통신기기(37.3%), 컴퓨터(15.7%), 선박 등 5대 수출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03년중 5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1%에 달하였으며, 2004년에도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04년 1/4분기중 5대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4.8%, 2/4분기에는 43.8%로, 이들 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5월중 반도체 수출은 각각 일본 81.3%, 미국 72.5%, 중국 137.8%, EU 91.3%, ASEAN 45.4%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3개월 연속 60%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6월 들어서도 선박을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반도체는 D램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 대한 수출물량 증가가 이어져 6월중 총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5]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자동차	10.9	23.2	46.2	4.6	40.7	29.4	42.0	36.3
반도체	16.6	9.7	3.5	23.6	30.2	17.5	46.7	64.4
무선통신기기	38.2	48.4	33.0	42.9	29.0	37.3	45.4	59.5
컴퓨터	15.1	0.8	0.1	24.3	37.4	15.7	49.9	38.8
선박	9.7	16.6	27.1	11.9	-30.3	4.3	61.0	2.8
총수출	8.0	20.7	14.4	15.9	25.6	19.3	37.7	39.0

주: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2004년 2/4분기는 잠정치임.

자료: 산업자원부, 「2004년 5월 수출입 실적(확정)」, 「2004년 6월 수출입 실적(잠정) 평가」.

지역별로는 2003년중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 대비 47.8% 증가하여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반적인 수출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일본·미국·EU·ASEAN 등에 대한 수출도 지난 해 9월 이

후 연속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 2/4분기중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3%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2004년 1/4분기중 중국에 대한 수출은 기계류 및 철강, 자동차, IT 상품을 중심으로 50.7%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4분기에는 중국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63.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내수회복에 힘입어 3개월 연속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2/4분기에도 32.7%의 높은 수출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내수의 증가로, 2004년 들어서 6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2/4분기에 34.0%의 높은 수출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U에 대한 수출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6]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중국	30.6	60.6	35.6	51.4	46.2	47.8	50.7	63.2
미국	5.0	3.1	3.4	1.0	11.1	4.4	19.8	32.7
EU	10.5	24.8	15.0	9.5	11.3	14.7	28.1	35.7
ASEAN	11.8	6.6	6.6	3.6	23.6	10.1	25.3	15.6
일본	-8.3	20.5	10.5	7.4	18.2	14.1	30.8	34.0

주: 1.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2004년 2/4분기의 수치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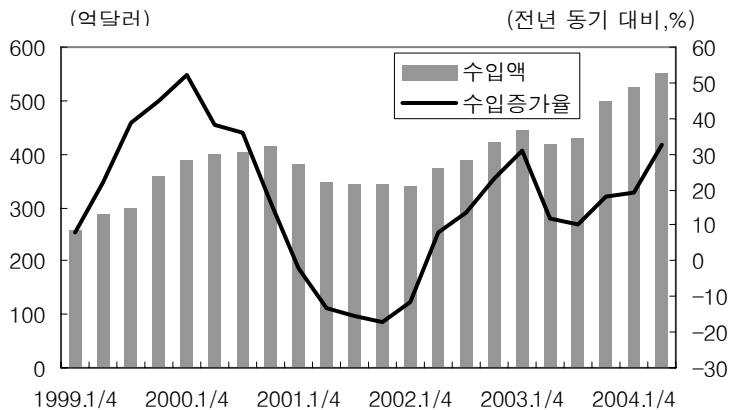
자료: 산업자원부, 「2004년 5월 수출입 실적(확정)」, 「2004년 6월 수출입 실적 (잠정)평가」.

(2) 수입

2003년중 수입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1,78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재 수입이 증가한 외에도, 수출호조에 따른 반도체와 기계류 수입의 큰 폭 증가와 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원자재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04년 1/4분기중 수입은 527억 3천만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의 1/4분기의 442억 2천만달러에 비해 19.2% 증가하였고, 2/4분기중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6% 증가한 552억 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9] 수입 및 수입 증가율 추이



품목별로 지난해 수입 추이를 보면, 2003년 원자재는 유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고, 자본재는 반도체와 기계류의 수입증가로 전년 대비 18.7% 증가하였다. 소비재는 내수부진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다. 원자재 수입은 2004년 1/4분기에는 원유 수입액 증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지속에 따른 철강금속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2004년 2/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한 6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자본재 수입은 2004년 1/4분기중 수출호조에 따른 반도체와 기계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하였으며, 2/4분기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45억 6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2004년 1/4분기중 소비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여 전분기의 12.1%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듯 하였으나, 2/4분기에 들어와서 다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여 지난해(12.1%)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17] 주요 품목별 수입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소비재	23.6	18.7	11.6	7.1	12.1	12.1	9.5	12.8
원자재	2.9	31.9	10.9	11.3	18.2	17.7	19.4	39.4
자본재	9.4	31.7	14.0	10.0	20.8	18.7	21.5	28.5
총수입	7.8	30.9	12.1	10.4	19.5	17.6	19.2	32.6

주: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임.

자료: 산업자원부, 「2004년 5월 수출입 실적(확정)」, 「2004년 6월 수출입 실적(잠정)평가」.

지역별로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주요 교역국가인 일본·미국·중국·EU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3년 대 미국 수입은 248억 1천만달러로 반도체 및 화공품 등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컴퓨터와 수송장비 등 정보통신기기의 수입은 감소하여 전년 대비 7.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 일본 수입은 화공품, 철강재,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363억 1천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1.6% 증가하였으며, 대 중국 수입은 219억 1천만달러로 곡물, 컴퓨터, 반도체 등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5.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4년 1/4분기중 대일본 수입은 IT상품의 수출 증가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기전자 및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4.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미국 수입은 철강제품, 농산물, 육류의 수입급증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수입의 감소와 반도체 및 화공품의 수입증가율 둔화로 인하여 2004년 1/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4분기에는 농산물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고철 등의 수입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 및 철강금속제품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하였으며, 2/4분기에도 36.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표 18] 주요국별 수입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미국	2.8	21.5	7.2	-4.2	8.7	7.8	4.4	13.9
일본	12.1	37.3	15.1	14.8	22.0	21.6	32.2	34.1
중국	30.8	34.1	25.2	21.7	24.3	25.9	28.5	36.4

주: 1.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2004년 2/4분기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산업자원부, 「2004년 5월 수출입 실적(확정)」, 「2004년 6월 수출입 실적(잠정) 평가」.

나. 경상수지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2004년 1/4분기중 무역수지는 65억 5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4분기중에는 87.3억달러를 기록하여 상반기중 152.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4년 6월까지 누계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각각 66억 7천만달러와 100억 9천만달러로 증가추

세에 있으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수출 증가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로 6월까지 121억 5천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9]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출액 (증가율)	1624.7 (8.0)	430.4 (20.7)	460.5 (14.4)	478.3 (15.9)	569.0 (25.6)	1938.2 (19.3)	592.8 (37.7)	640.2 (39.0)
수입액 (증가율)	1521.3 (7.8)	442.2 (30.9)	417.1 (12.2)	429.7 (10.5)	499.2 (18.1)	1788.3 (17.6)	527.3 (19.2)	552.9 (32.6)
무역수지	103.4	-11.9	43.4	48.6	69.8	149.9	65.5	87.3

주: 1. ()내 수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 2004년 2/4분기는 잠정치임.

자료: 산업자원부, 「2004년 6월 수출입 실적 (잠정)평가」.

2003년중 경상수지는 수출호조에 따른 상품수지의 흑자규모 확대, 금료 및 임금수지의 흑자에 따른 소득수지의 증가,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 축소로 2002년의 2배가 넘는 123억 2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4년 1/4분기중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2003년 4/4분기보다 흑자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의 15억 2천만달러 적자와 비교할 때 큰 규모인 6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4분기에는 70억 8천만달러로 흑자규모가 증가하였다.

2004년 1/4분기중 상품수지는 수출호조로 86억 1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4분기에는 104억 5천만달러로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이유는 중국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된 반면 수입은 내수 부진과 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규모가 줄어들었으며, 수입증가율 또한 수출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표 20] 경상수지 동향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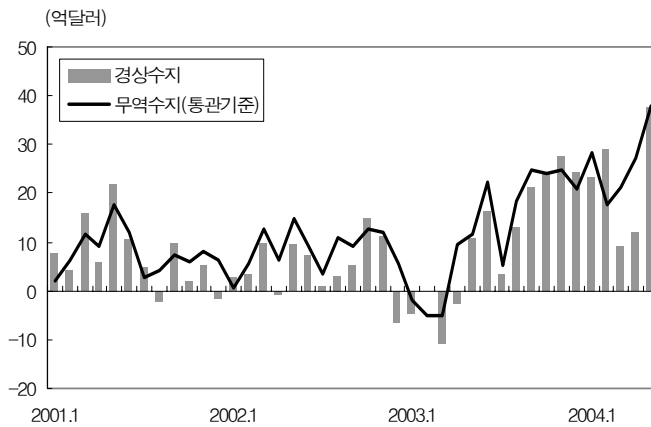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p	2/4 ^p	상반기 ^p
경상수지	53.9	-15.2	24.3	37.6	76.6	123.2	61.5	70.8	132.2
상품수지	147.8	12.4	57.6	68.2	83.5	221.6	86.1	104.5	190.6
서비스수지	-82.0	-23.0	-16.7	-26.5	-9.9	-82.0	-18.8	-15.1	-33.9
소득수지	4.3	2.5	-10.4	4.8	9.0	6.0	2.3	-11.6	-9.4
이전수지	-16.2	-7.2	-6.2	-8.9	-5.9	-28.2	-8.0	-7.1	-15.1

주: p는 잠정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2004년 6월중 국제수지 동향 (잠정)」.

서비스수지는 2004년 1/4분기와 2/4분기중 각각 18억 8천만달러, 15억 1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여 전년도 4/4분기의 9억 9천만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소득수지는 2004년 2/4분기중 대외자산운용 수익의 감소로 인하여 2003년 3/4분기 이후 3분기만에 적자로 반전하여 11억 6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10]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추이



2003년중 자본수지는 131억 1천만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여 2002년의 68억 6천만달러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2004년 1/4분기중 자본수지는 예금은행의 단기외화대출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증가에 의해 26억 5천만달러의 순 유입을 기록하였으나, 2/4분기중에는 해외 중장기채 순 매입, 매입외환 등 내국인 투자증가로 32억 3천만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표 21] 자본수지 동향

(단위: 억달러)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p
자본수지	62.5	20.0	25.0	37.6	48.8	131.3	26.5	-32.3
직접투자	-2.2	-4.3	-1.9	-4.4	8.6	-2.1	-8.4	25.3
증권투자	7.9	-11.2	38.0	77.2	75.6	179.6	107.4	-11.1
기타투자	68.5	38.7	-7.3	-31.4	-32.2	-32.2	-68.5	-41.9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2004년 6월중, 국제수지 동향 (잠정)」.

5. 재정

가. 국세세입 실적

2003년도 국세세입 실적은 예산액인 114조 9,469억원에 비해 0.2% 감소한 114조 6,642억원으로, 2002년도 국세수입 103조 9,678억원에 비해 10.3% 증가하였다. 예산대비로 볼 때 특별회계는 8.2%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는 0.6% 증가하였다.

세목별 국세세입 실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상속증여세가 전년 실적 대비 53.6%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앞두고 증여재산가액이 2002년 대비 29.2%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둘째, 법인세는 전년 대비 33.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법인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순이익률은 전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반면, 제조업 금융비용은 38% 감소한 데 힘입어 2002년도 기업실적의 호조 및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로 신고분법인세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세가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다. 2002년 대비 3.43%의 지가상승과 5.7%의 주택가격 상승, 3.5%의 토지거래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수가 17.9% 증가하고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수가 전년 대비 9.8% 증가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다. 넷째, 부가가치세는 내수부진 및 수출호조로 인한 환급증가로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예산보다 감소한 반면 수입액 증가로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증가하여 전체로는 전년 대비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섯째,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주식거래대금의 대폭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1.1% 감소하였다. 거래소시장 주식거래대금은 2002년 742조 2천억원에서 2003년 547조 5천억원으로 26.2% 감소했고, 코스닥시장 주식거래대금은 2002년 294조 1천억원에서 2003년 266조 4천억원으로 9.4% 줄어들었다. 이러한 주식거래대금 감소는 증권거래세분 농어촌특별세가 감소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1999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온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2003년에는 각각 20.4%, 25.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도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국세부담률이 15.2%에서 15.9%로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며 지방세 부담률은 2002년의 4.6%와 비슷한 4.5%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여금률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세부담률의 증가가 국민부담률의 증가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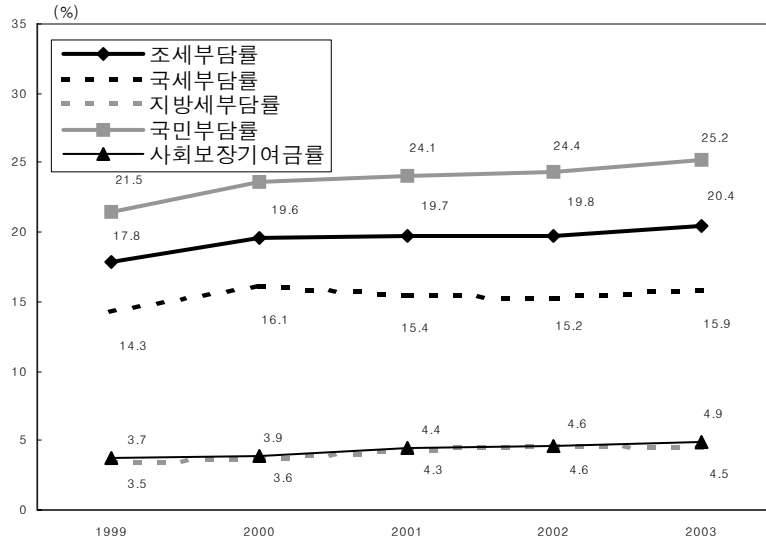
[표 22] 2003년 세목별 국세세입 실적

(단위: 억원, %)

	2002 실적	2003		2002 실적 대비		2003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국 세	1,039,678	1,149,469	1,146,642	106,964	10.3	-2,827	-0.2
일반회계	942,858	1,043,431	1,049,257	106,399	11.3	5,826	0.6
내국세	795,505	880,996	894,957	99,452	12.5	13,961	1.6
소득세	191,605	201,574	207,873	16,268	8.5	6,299	3.1
법인세	192,432	241,915	256,327	63,895	33.2	14,412	6.0
상속증여세	8,561	8,707	13,150	4,589	53.6	4,443	51.0
부가가치세	316,088	337,139	334,470	18,382	5.8	-2,669	-0.8
특별소비세	42,882	50,309	47,330	4,448	10.4	-2,979	-5.9
증권거래세	20,358	16,474	16,065	-4,293	-21.1	-409	-2.5
인지세	4,822	5,455	4,565	-257	-5.3	-890	-16.3
과년도수입	18,738	19,423	15,181	-3,557	-19.0	-4,242	-21.8
교통세	81,332	90,615	85,804	4,472	5.5	-4,811	-5.3
관 세	66,013	71,820	68,473	2,460	3.7	-3,347	-4.7
특별회계	96,820	106,038	97,385	565	0.6	-8,653	-8.2
주 세	26,550	30,919	27,341	791	3.0	-3,578	-11.6
교통세	13,443	14,997	14,201	758	5.6	-796	-5.3
교육세	35,316	39,329	36,513	1,197	3.4	-2,816	-7.2
농특세	21,289	20,793	19,317	-1,972	-9.3	-1,476	-7.1

자료: 재정경제부, 「2003년도 국세수입실적」

[그림 11]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나. 통합재정수지

2003년도 통합재정의 세출 및 순융자 규모는 164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다. 지출증가의 원인으로는 7조 2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편성과 원금 13조원과 이자 3조 8천억원 등의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출연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2003년 통합재정 세입은 2002년 대비 8.5% 증가한 172조 2천억원이며,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8조 1천억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2003년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2002년의 22조 7천억원에 비해 14조 6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지출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출연 등이 흑자 규모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표 23] 한국의 통합재정

(단위: 10억원, %)

	세 입		세출 및 순융자		수지차 (I-II)	수지차의 대GDP 비중
	금액(I)	증가율	금액(II)	증가율		
1994	61,741	19.8	60,357	18.9	1,384	0.5
1995	72,820	17.9	71,579	18.6	1,241	0.3
1996	85,528	17.4	84,429	17.9	1,099	0.2
1997	93,368	9.2	100,327	18.8	-6,959	-1.4
1998	96,673	3.5	115,430	15.1	-18,757	-3.9
1999	107,923	11.6	120,988	4.8	-13,065	-2.5
2000	135,811	25.8	129,284	6.9	6,527	1.1
2001	144,033	6.1	136,765	5.8	7,268	1.2
2002	158,712	10.2	136,047	-0.5	22,665	3.3
2003	172,226	8.5	164,086	20.7	8,140	1.1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4 1/4분기.

부문별 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등을 포함하는 예산부문에서 15조 4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기금에서는 2조 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19조 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할 경우 적자규모는 21조 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2003년 비금융공기업 부문은 총 4조 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24] 통합재정수지

(단위: 10억원)

	예산				기금			비금융 공기업	통합재정수지		
	일반 회계	기타특 별회계	세입 세출외	합계	사회 보장성 기금	기타 기금	합계		(A)	(B)	
1994	9,658	-7,080	-575	2,003	2,811	-2,757	54	-673	1,384	-1,427	-1,427
1995	13,192	-9,793	-1,045	2,354	3,461	-3,699	-238	-875	1,241	-2,220	-2,220
1996	13,998	-11,356	-443	2,199	5,286	-5,723	-437	-663	1,099	-4,187	-4,187
1997	13,983	-13,053	-7,548	-6,618	5,863	-4,992	871	-1,212	-6,959	-12,822	-12,822
1998	7,139	-16,892	-6,157	-15,910	6,140	-7,183	-1,043	-1,804	-18,757	-24,897	-24,897
1999	14,621	-21,831	-1,552	-8,762	7,377	-10,937	-3,560	-743	-13,065	-20,442	-20,442
2000	24,299	-19,821	-297	4,181	12,479	-9,389	3,081	-736	6,527	-5,953	-5,953
2001	18,341	-16,651	-269	1,421	15,452	-6,905	8,547	-2,700	7,268	-8,184	-8,184
2002	24,919	-14,874	-213	9,832	17,580	-1,591	15,989	-3,156	22,665	5,085	5,085
2003	21,673	-6,233	-93	15,347	19,621	-21,882	-2,260	-4,973	8,140	-11,481	1,519

주: 1. (A)는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시 통합재정수지.

2. (B)는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중 원금 제외시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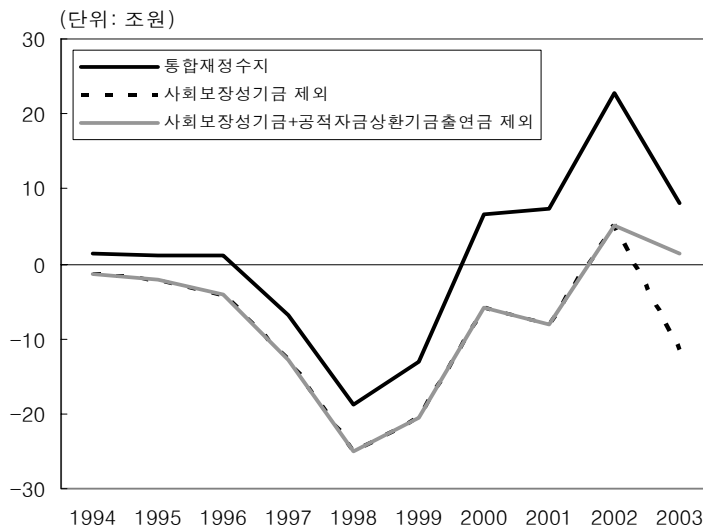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4 1/4분기.

통합재정수지를 검토할 때에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기금조정 통합재정수지를 아울러 비교해 분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상기금, 사학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성격상 재정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할 경우 2003년 기금조정 통합재정수지는 11조 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통합재정수지를 파악할 때 2003년부터 지출되고 있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 중 이자 3조 8천억원은 2003

년도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3조원의 원금은 공적자금 투입 시 지출된 것으로 2003년도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3조원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 중 원금을 제외할 경우 2003년도의 공적상환 기금관련 조정 후 통합재정수지는 1조 5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2]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추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2002년 처음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03년에도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원금을 제외할 경우) 흑자 기초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2004년에는 3조 5천억원 규모의 적자예산이 편성되었다. 2004년도의 적자예산 편성은 경기부양, 저소득층 생활개선, 실업문제 해소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사회안전망 확대에 의한 재정지출 압력,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증가할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사회

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균형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적자재정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 하에서 적절하게 배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단년도에는 적자재정이 편성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균형재정의 기조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년도의 적자재정편성 역시 적자상한선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되는 규율화된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국가채무

2003년 말 현재 IMF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2조 960억 원 증가한 165조 7,090억 원으로 GDP대비 23.5% 수준이다.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158.8조원으로 GDP 대비 22.0% 수준이며, 지방정부채무는 18.4조원으로 GDP 대비 2.6%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11.6조원을 기록하였다. 2003년도 채무수준을 국민 일인당 부채로 환산할 경우 2003년 인구 4,792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345만 7,000원 수준이다. 이는 2002년도의 280만 4,000원에 비해 23.3%나 증가한 것이다.

2003년도에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채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02년 103조 1천억원이었던 국채는 2003년에는 140.6조원으로 27조 5천억원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채가 증가한 것은 14조 4천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국채 전환, 12조 8천억원 규모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조달, 4조 3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경기 진작에 따른 첨가소화 주택채권 발생 증가, 그리고 3조원 규모의 일반회계 추경편성 재원 조달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차입금 및 국고채부담행위, 지방정부 부채 등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25]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2000	2001	2002	2003
국가채무(A+B-C)	111.4	122.1	133.6	165.7
(GDP대비 비중)	(19.3)	(19.6)	(19.5)	(23.0)
중앙정부(A)	100.9	113.1	126.6	158.8
(GDP대비 비중)	(17.4)	(18.2)	(18.5)	(22.0)
국채	76.3	87.8	103.1	140.6
차입금	21.9	22.5	20.7	15.8
국고채무부담행위	2.7	2.8	2.8	2.4
지방정부(B)	22.3	21.3	19.5	18.4
(GDP대비 비중)	(3.9)	(3.4)	(2.8)	(2.6)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C)	11.9	12.3	12.5	11.6

주: GDP는 2000년 기준임.

자료: 재정경제부, 「2003년말 국가채무 현황」.

한편 2003년 말 현재 국가보증채무(구조조정 채권, 공공차관 보증 등)는 80조 6천억원(GDP 대비 11.2%)으로 전년 대비 21.9조원이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주요 감소 내역을 보면, 구조조정채권이 18조원 감소(국고채 전환: 13조 2천억원)하였고, 공공차관보증 3천억원 감소, 기타 3조 6천억원 감소하였다.

[표 26] 국가보증채무 현황

(단위: 10억원, %, %p)

	2000	2001	2002(A)	2003(B)	증감(A-B)
국가보증채무	74,565	106,770	102,471	80,590	-21,881
(GDP 대비 비중)	(12.9)	(17.2)	(15.0)	(11.2)	(-3.8)
구조조정 채권 ¹⁾	68,166	97,355	95,325	77,396	-17,929
공공차관 보증	3,786	3,431	1,718	1,459	-259
기타 ²⁾	2,613	5,984	5,428	1,735	-3,693

주: 1) 예금보험공사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 대러경협차관(2004년 3월 국채발행을 통해 보증채무 이행), 농협비료계정 한은차입 보증(2004년 1월 상환) 등

자료: 재정경제부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보증 채무를 고려하더라도 OECD 평균인 78.2%와 비교할 때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채무를 평가할 때 현재의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의 변화추이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수준을 무조건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조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II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1. 해외경제 여건
2. 주요국 경제
3. 환율 및 국제 금리
4. 국제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1. 해외경제 여건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경제는 IT 분야의 과잉투자에 따른 후유증의 해소, 고용회복세 등으로 지난 3년간의 경기 침체를 벗어나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도 수출증가세, 설비투자 확대, 소비 회복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로지역도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조금씩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고용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는 정부당국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대출 증가 억제 등 긴축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1/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9.7%, 2/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9.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27] 주요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01	2002	2003	2004			
				G.I.	IMF	J.P.모건	골드먼-삭스
전세계	1.4	1.8	2.7	4.3	-	-	-
미국	0.5	2.2	3.1	4.9	4.6	4.5	4.6
일본	0.4	-0.4	2.7	4.5	3.4	4.6	4.3
중국	7.3	8.0	9.1	8.5	8.5	8.8	9.7
유로	1.7	0.9	0.5	1.7	1.7	2.0	2.0
독일	1.0	0.2	-0.1	1.2	1.6	-	-
프랑스	2.1	1.2	0.2	2.1	1.8	-	-

주: 실질 GDP 성장률이며, 2004년은 전망치임.

자료: 1. Global Insight,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4*, April 2004.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4.

세계경제가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자 경제전망 기관들은 최근 들어 각국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였다. 세계 주요 경제 전망기관 중의 하나인 Global Insight는 미국의 성장률이 4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높아진 4.9%, 일본은 1% 포인트 이상 높아진 4.5%로 전망치를 수정하였다.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1.7%로 종전의 전망치를 유지하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8.5%로 0.5% 포인트 상향조정하였으며, 주요 투자은행들 역시 주요국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2003년중 세계교역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IMF는 2004년중 전세계 교역량은 지난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교역량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이유는 경기 회복의 진전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역량 전망치가 모두 지난해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아진데 따른 것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8] 세계 교역량 전망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세계	12.5	0.1	3.1	4.5	6.8	6.6
선진국	11.7	-0.8	1.9	2.7	6.3	6.1
미국	8.7	-5.2	-2.4	2.0	8.6	6.6
일본	12.5	-6.1	7.9	10.0	10.2	7.7
유로 지역	12.2	3.3	1.2	0.0	4.4	5.8
개도국	16.5	3.0	6.4	10.6	11.2	9.7
중동	11.7	9.5	9.2	2.8	3.1	4.7
아시아	24.3	1.3	12.1	16.2	16.5	13.3
아프리카	3.2	5.3	6.1	7.0	6.5	8.9

주: 수입물량 기준이며 전세계 교역량만 수출 및 수입물량 증가율의 평균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4.

2. 주요국 경제

가. 미국경제

2002년 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 1.9%에 그쳤던 미국경제는 2003년 2/4분기 이후 국내외 수요의 증가로 소비 및 기업의 자본 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사정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03년 3/4분기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률 7.4%로 기록적인 성장을 보인 이후 2003년 4/4분기와 2003년 1/4분기 연속 4%대의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미국의 2004년 1/4분기 GDP는 주택경기 및 설비투자의 호조세, 개인소비의 확대로 전기 대비 연률 4.5% 증가하였고, 2/4분기에는 비내구재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여 GDP 증가율이 3.0%로 둔화되었다.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세 지속과 감세에 의한 소비지출여력 증가로 2004년 1/4분기중 전기 대비 연률 4.1% 증가하여, 전년도 4/4분기(3.3%)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비내구재 소비지출이 2004년 1/4분기(6.7%)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0.1%)하여 민간소비는 2/4분기에 전기 대비 연률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4년 1/4분기중 민간총투자는 전기 대비 연율 12.3% 증가하고 2/4분기에도 전기 대비 연율 12.8%의 증가를 보여 전년도 3/4분기(22.4%)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설비투자는 2004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연율 8%, 10% 증가하였으나 2003년 3/4분기(21.7%)와 4/4분기(12%)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년중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쳤던 산업생산은 2004년 1/4분기중 가계소비의 증가, 낮은 재고 수준, 신규주문 증가로 전기 대비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전월 대비 0.8%, 1.1%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생산의 선행지표인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도 2004년 5월중 신규주문의 증가로 62.8를 기록하여 12개월 연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시사하기도 하였으나, 6월중에는 61.1을 기록하여 경기확장 속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비의 선행지표

[표 29] 미국의 국민계정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1.9	1.9	4.1	7.4	4.2	3.0	4.5	3.0
민간소비	3.1	2.7	3.9	5.0	3.6	3.3	4.1	1.0
민간총투자	-2.4	-0.8	3.5	22.4	13.9	4.4	12.3	12.8
설비투자	-5.5	4.5	11.0	21.7	12.0	6.4	8.0	10.0
정부소비 및 투자	4.4	0.2	7.2	0.1	1.6	2.8	2.5	2.3

주: 수치는 전기 대비 연율임.

자료: 미국 상무부.

인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04년 6월중 101.9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3년중 전년 대비 4.6% 증가율을 보였던 수출은 광우병과동으로 인한 축산물 수출 부진으로 인하여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에 각각 전월 대비 0.7%, 1.5%의 감소세를 보였다. 2004년 2월과 3월중에는 각각 전월 대비 5.3%, 3.6%의 증가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4월에는 다시 전월 대비 2.3%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년중 8.2%의 증가율을 보였던 수입은 2004년 1/4분기중 경기 회복에 의한 수요증가와 유가상승으로 5.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4년 4월에 들어와서는 수입 증가율이 전월(3.5%)에 비해 현저하게 둔화되어 0.2%에 그쳤다. 고용도 내수업종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며, 2003년 평균 6%에 달하였던 실업률도 2004년 1/4분기 및 2/4분기 모두 5.6%를 기록하여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0] 미국의 주요 경기지표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산업생산	-0.6	0.2	-1.1	1.0	1.4	0.3	1.6	1.5
소매판매	3.7	1.3	1.5	2.6	1.1	5.4	2.3	1.4
수출	-5.1	1.5	0.6	0.8	5.4	4.6	3.8	4.1
수입	1.2	2.1	-0.4	0.9	4.8	8.2	5.6	4.6
무역수지(억달러)	-4,180	-1,216	-1,234	-1,223	-1,225	-4,965	-1,369	-
소비자물가	1.6	1.0	0.2	0.6	0.2	2.3	0.9	1.2
생산자물가	-1.3	2.4	-0.5	0.8	1.0	3.2	0.6	1.8
실업률	5.8	5.8	6.2	6.1	5.9	6.0	5.6	5.6
ISM (제조업) ¹⁾	52.4	50.2	48.9	54.1	60.6	53.3	62.5	62.1
소비자 신뢰지수 ²⁾	96.6	68.7	82.7	78.6	88.6	79.5	91.1	96.0

주: 수치는 전기 대비 증가율이고, 수출·수입은 4월과 5월임.

1) 50이 기준임.

2) 1985 = 100

자료: FRB, BEA, BLS, Conference Board

Global Insight에 따르면 올해 미국경제가 가계 소비지출 증가와 기업부문의 자본지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사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4% 후반대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3% 이내의 물가상승률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A-3] 및 [A-4] 참조).

나. 일본경제

2002년중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일본경제는 2003년중 2.5%의 성장률을 시현하면서 그 동안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해외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계소비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표 31] 일본의 주요 경기지표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국내총생산 ¹⁾	-0.4	0.1	0.9	0.7	1.8	2.5	1.5	-
광공업생산 ¹⁾	-1.3	0.2	-0.4	1.0	3.9	3.5	0.5	2.6
도·소매판매	-2.9	-1.8	-2.6	-2.2	-1.2	-1.9	0.2	-2.0
가계소비지출 ²⁾	-0.2	-2.3	-1.1	-2.3	-0.2	-1.2	2.9	3.6
기계수주(민간) ¹⁾	-12.0	8.9	1.1	-1.0	8.5	10.7	-5.6	12.8
자본재출하 ³⁾	-5.4	1.0	1.0	0.1	8.1	5.7	12.9	17.6
실업률	5.4	5.4	5.4	5.2	5.1	5.3	4.9	4.6
소비자물가	-0.9	-0.2	-0.3	-0.2	-0.3	-0.3	-0.1	-0.3
수출	6.4	5.0	2.8	7.1	4.0	4.7	11.7	13.4
수입	-0.6	8.1	6.2	6.5	-0.5	5.0	4.3	9.0
M2 + CD	3.3	1.8	1.6	1.8	1.5	1.7	1.7	1.9
환율(엔/달러) ⁴⁾	125.1	118.9	118.5	117.4	108.8	107.3	107.2	109.6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1) 전기 대비 증가율
- 2) 근로자 세대
- 3) 수송기계 제외
- 4) 기간 평균임

자료: 총무성 통계국, 경제산업성, 재무성, 일본은행.

일본경제는 2004년 1/4분기중 전기 대비 1.5%의 GDP 증가율을 시현하여 지난 2003년 4/4분기의 성장세(1.8%)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3년 중 전년 대비 3.3% 증가율을 보인 광공업생산은 2004년 1/4분기중 전기 대비 0.5% 증가에 그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4분기에는 다시 전기 대비 2.6%로 높아졌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민간)는 2004년 1/4분기중 전기 대비 5.6% 감소하였으나, 2/4분기중 전기 대비 12.8%의 높은 증가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중 연평균 5.3%에 달하였던 실업률은 2004년 1/4분기중 4.9%로 낮아졌으며 실물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2/4분기중에도 4.6%로 하락추세를 이어가 1월(5.0%) 이후 고용사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민간소비지출의 동행지

표인 도·소매판매는 2004년 1/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여 2003년의 4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듯 하였으나, 판매세 가격표시제도 실시의 영향으로 2/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로 돌아섰다. 2003년중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소비 지출은 2004년 1/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여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2/4분기중에도 3.6%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중 전년 대비 연평균 2.1% 증가하였던 자본재 출하는 2004년 1/4분기와 2/4분기중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9%, 17.6%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경제는 해외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되고 생산이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소비와 고용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일본은 올해 수출과 생산증가 그리고 투자확대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높은 4% 내외의 경제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유로경제

유로경제는 2003년중 전년 대비 0.5%의 부진한 성장을 보였다. 2003년중 전년 대비 2.6%의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이 2004년 1/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로 반전되고 4월중 증가세가 8.1%로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산업생산(건설업 제외)은 2003년중 전년 대비 0.4% 증가하여 2002년의 전년 대비 0.5% 감소로부터 벗어났다. 2004년 1/4분기중 산업생산은 전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나, 4월중 전기 대비 0.3% 증가하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의 선행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신규주문의 증가와 더불어 1/4분기중 52.8, 4월중 54.0, 5월중 54.7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제조업 생산이 점차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003년중 연평균 8.9%를 기록하였던 실업률은 2004년 1/4분기중 8.9%, 4월과 5월중 9.0%로 12개월 연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2003년중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강세로 2.6% 감소하였으나, 2004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1년간의 계속된 부진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2004년 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여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전반적인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다.

[표 32] 유로의 주요 경기지표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5월
국내총생산 ¹⁾	0.8	0.0	-0.1	0.4	0.4	0.5	0.6	-
산업생산 ¹⁾	-0.6	0.0	-0.8	-0.1	1.4	0.4	1.2	0.2
소매판매 ¹⁾	0.2	0.7	0.8	-0.4	-0.4	0.2	0.2	0.7
실업률	8.4	8.7	8.8	8.9	8.9	8.9	8.9	9.0
소비자물가	2.3	2.3	1.9	2.0	2.0	2.1	1.7	2.0
체감경기지수	95.6	94.9	91.3	94.2	97.8	93.5	98.8	100.2
제조업PMI ²⁾	49.8	49.3	47.1	49.1	52.0	49.4	52.8	54.0
수출(fob) ³⁾	1.5	-1.5	-5.9	-2.6	-0.8	-2.6	4.5	8.1
수입(cif) ³⁾	-3.4	3.4	-2.9	-1.8	0.7	-0.1	-0.3	4.4
M3	7.2	7.6	8.5	8.3	7.6	8.0	6.4	5.5
환율(USD/EUR)	0.946	1.073	1.137	1.125	1.189	1.131	1.250	1.199
주가 ⁴⁾	3,023	2,212	2,341	2,512	2,614	2,405	2,847	2,86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임.

1) 전기 대비

2) 50 기준

3) 통관 기준

4)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Eurostat.

2003년중 유로경제는 유로화 강제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높은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아 소비가 부진하였지만, 2004년 1/4분기중 유로화의 약세 전환으로 수출이 전기 대비 0.6%(연율 2.4%)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IMF와 Global Insight는 올해 유로경제가 개인소비의 부진으로 1.7% 대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 중국경제

2003년중 연간 9.1% 성장을 보였던 중국경제는 정부당국의 경기진정책이 효과를 보여 2004년 상반기중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금년 상반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9.7% 상승하였는데, 1/4분기와 2/4분기중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8%, 9.6%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2003년중 전년 대비 16.7%의 증가를 보였던 공업생산은 금년 상반기중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03년중 전년 대비 28.4%의 증가하였던 고정자산투자는 2004년 상반기중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하였는데 1/4분기보다 2/4분기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어 지난 5월의 경기진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중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식품가격(9.5%)과 주거가격(3.7%)이 상승하였고, 교통 및 통신(-1.7%), 의류(-1.4%)는 하락세를 보였다.

금년 상반기중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통화공급량 감소, 금융대출 증가세 둔화, 환율안정 등 경기진정책의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총통화량(M2)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 예금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 외환보유고는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한 4,706억달러에 달하였다.

금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한 2,581억달러, 수입은

42.6% 증가한 2,649억달러로, 상반기 무역수지는 6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중국경제는 수출과 생산, 그리고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과잉투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4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9.7%, 2/4분기 9.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현재 중국은 급속한 양적 성장 위주로 부터 질적인 균형 성장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경제 당국은 긴축 정책을 통한 안정적 경제운용을 위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 대로 하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투자와 소비의 양극화,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에 대한 대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7% 대의 목표성장률과 3% 이내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33]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8.0	9.9	7.9	9.6	9.9	9.1	9.8	9.6
공업생산	12.6	17.2	15.2	16.6	17.7	16.7	17.7	17.7
고정자산투자 ¹⁾	17.4	27.8	32.8	31.4	28.4	28.4	47.8	31.0
소매판매	8.8	9.2	6.7	9.7	10.3	9.0	10.7	14.9
소비자물가	-0.8	0.5	0.7	0.8	2.7	1.2	2.8	4.4
수출 ²⁾	22.1	33.2	34.4	29.7	40.4	34.7	33.9	37.2
수입 ²⁾	21.2	52.6	38.5	34.2	38.5	39.9	42.0	43.0
무역수지(억달러)	303	-10	54	46	164	254	-88	16
M2	15.0	18.6	19.3	21.0	20.3	19.8	18.9	17.6
주가(상해B) ³⁾	113.5	122.5	112.3	99.1	104.9	104.9	117.2	86.9

주: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1) 누계액 기준

2) US \$ 기준

3) 기말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3. 환율 및 국제 금리

가. 환율

2002년말 118.5엔을 기록하였던 엔/달러 환율은 2003년 말 9.8% 평가절하된 106.6엔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1/4분기중 엔/달러 환율은 평균 107.0엔으로 지난 4/4분기(108.8엔)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올해 4월말부터는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해외자산 매입확대, 일본에 대한 테러위험 고조 등으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지난 4월 1일 103.7엔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4분기말 현재 109.7엔까지 상승하였다.

2003년말 1.047달러를 기록하였던 달러/유로 환율(기말기준)은 2003년 말 1.254달러를 기록하여 19.8% 평가절하 되었으나, 올해 들어 지속적인 약세가 진정되면서 2004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2.9%, 7.4% 절상되었다. 이는 유로지역과의 경제성장 격차 확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기대 등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 정책당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고용지표가 2004년 4월에 호전되자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6월 30일 0.25% 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인상 효과가 환율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달러화 강세현상은 연말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4] 주요통화 환율 추이

		2002	2003					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엔/달러	평균	125.3	118.9	118.5	117.5	108.8	115.9	107.0	109.6
	기말	118.5	119.7	119.8	111.1	106.9	106.9	104.9	109.7
달러/유로	기말	1.047	1.078	1.142	1.157	1.254	1.254	1.218	1.209
원/달러	기말	1,200	1,253	1,193	1,150	1,198	1,198	1,154	1,152

자료: 한국은행

[그림 13] 주요 환율 추이



나. 국제 금리

올해 국제 금리는 연초에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점차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단기채정증권(3개월 만기)은 작년 말 0.93%를 기록한 이래 금년 4월까지 안정세를 보였으나 5월과 6월에는 각각 1.07%, 1.29%로 크게 상승하였다. 미국의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미국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 연방준비이사회가 당장 정책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여 1/4분기중 하향 안정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정부의 미국 국채매입비중 축소 가능성이 전해지고, 물가상승과 고용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연방준비이사회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어 4월에는 4.51%, 5월에는 4.65%로 점차 상승하였으나, 6월에는 4.58%로 다시 안정되고 있다.

단기금리를 대표하는 리보금리(LIBOR)도 최근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리보금리는 지난해 말 1.15%를 기록한 이래 올해 4월에도 1.18%를 기록하여 큰 변화가 없었으나 5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6월에 들어서서는 1.61%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저금리의 대표국인 일본의 경우 2002년 말 0.061%였던 리보금리는 점차 하락추세를 보여 올해 4월에는 0.046%에 이르렀으나, 5월(0.049%)부터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여 6월말 현재 0.053%를 기록하고 있다.

[표 35] 주요 국제 금리 추이

(단위: %)

	2001	2002	2003	200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미국 단기채정증권	1.73	1.22	0.93	0.90	0.95	0.94	0.97	1.07	1.29
미국 장기채권	5.03	3.81	4.26	4.13	3.97	3.84	4.51	4.65	4.58
LIBOR(\$, 3개월)	1.88	1.38	1.15	1.13	1.12	1.11	1.18	1.32	1.61
L I B O R(¥, 3개월)	0.097	0.065	0.061	0.053	0.051	0.049	0.046	0.049	0.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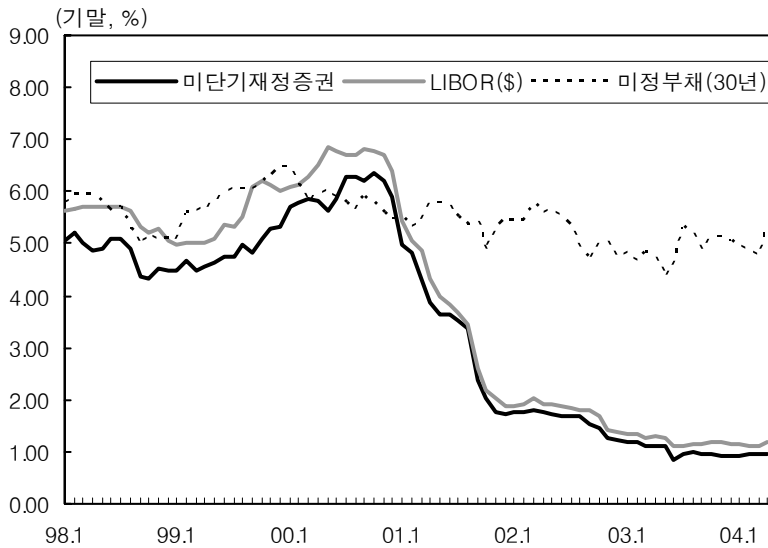
주: 1. 기말기준

2. 미국 단기채정증권은 3개월 만기

3. 미국 장기채권은 10년 만기

자료: Federal Reserve Board.

[그림 14] 주요 국제 금리 추이



달러화 약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상승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기업 간의 가격경쟁 격화, 유희자원의 존재, 기업의 이윤증가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분의 흡수여력 등은 인플레이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린스펀 연준 의장의 7월 20-21일 미국 의회 증언에 따르면,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에너지가격 급등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지출 둔화현상은 단기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는 미국 경제의 확장세가 향후에도 지속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필요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향후 국제 금리는 미국 등이 당분간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지만, 각국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점차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4. 국제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가. 국제 유가

국제원유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여 물가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배럴당 25.1 달러(연평균)이었던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급등을 거듭하여 6월 현재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월평균 38.02 달러에 거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Dubai)유 역시 6월 현재 월평균 33.54 달러로 급등하였다. 이처럼 원유 값이 급등한 것은 미국의 낮은 석유재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전략적 감산 결정,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증대, 국제투기자금의 유입 등이 주요원인이다.

[표 36] 원유가격 추이

(단위: \$/Bbl)

	2002	2003			2004					
		9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Dubai	23.81	26.79	25.37	28.12	28.86	28.63	30.78	31.53	34.66	33.54
Brent	25.15	28.70	27.03	29.90	31.33	30.89	33.81	33.39	37.85	35.09
WTI	26.09	31.11	28.25	32.15	34.23	34.73	36.73	36.71	40.27	38.02

주: 년, 월평균
자료: 산업자원부

향후 유가전망에 대해서는 당분간 러시아 유코스(Yukos) 사태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지만 최근의 유가급등이 실제 수급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불안심리만 해소된다면 유가가 상당폭 하락하여 안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6월 3일 유가 상승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일일 산유량 상한선을 2,600만 배럴로 250만 배럴(7월 200만 배럴, 8월 50만 배럴) 증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기본적으로 현재 수급측면에서 원유는 초과공급 상태이다. OPEC 생산쿼터 확대결정에 따른 경우(6월은 10개 OPEC 회원국이 일일 2,350만 배럴, 7월은 일 2,550만 배럴, 8월부터 일 2,600만 배럴을 준수하고 이라크는 일 2,100만 배럴 생산 가정) 원유는 연말까지 초과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 경기회복으로 중국 및 선진국의 석유소비가 증가할 가능성,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요인 상존, OPEC의 8월 이후 추가 증산 유보 가능성, 미국의 휘발유재고의 부족 가능성, 7월의 이라크 송유관 파손, 독일 최대 정유시설 화재 및 LG-Caltex 정유회사의 파업,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유코스 사의 생산중단 등은 향후에도 국제유가 불안정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7] 2004년 세계 원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배럴/일)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원유수요		81.0	78.7	80.2	82.5	80.6
원유 공급	OPEC	31.9	31.4	32.0	32.3	31.9
	비OPEC	49.8	49.8	49.9	50.8	50.1
	합계	81.7	81.2	81.9	83.1	82.0
공급 - 수요		+0.7	+2.5	+1.7	+0.6	+1.4

주: 1. 5월부터 OPEC 10개국과 이라크 원유공급은 일 23.5백만배럴과 일 2.4백만배럴로 가정.

2. OPEC는 10개회원국과 이라크를 더한 것.

자료: IEA, 국제금융센터.

나. 국제 원자재 가격

원유 이외의 기타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꾸준히 상승하여 생산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로이터 상품가격지수는 올해에도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연초에 오름세가 지속(3월 24일 1,747 고점)되었으나 상승률이 둔화되었고, 3월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여 6월말 현재 1,643을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비철금속인 동은 투기자금의 매수세 위축, 중국정부의 경기 과열 억제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6월말 2,641달러로 하락하여 조정국면에 진입하였다. 소맥은 주산지인 중국, 미국, 인도 등의 기상여건 호전, 미국의 옥수수 조기파종에 따른 수확량 증대 전망 등으로 6월말 현재 359달러까지 하락하였다.

반도체가격(DDR 256MB)은 작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3월 중순 이후 개인용 컴퓨터(PC)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재고수요 증가로 급등하여 4월 중순에는 6.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4월 중순이후 대만 및 중국 반도체업체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여 6월말 현재 4월 중순에 비하여 약 30% 정도 하락한 4.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DRAM Exchange는 금년 3/4 분기중 반도체가격이 PC업체들의 수요확대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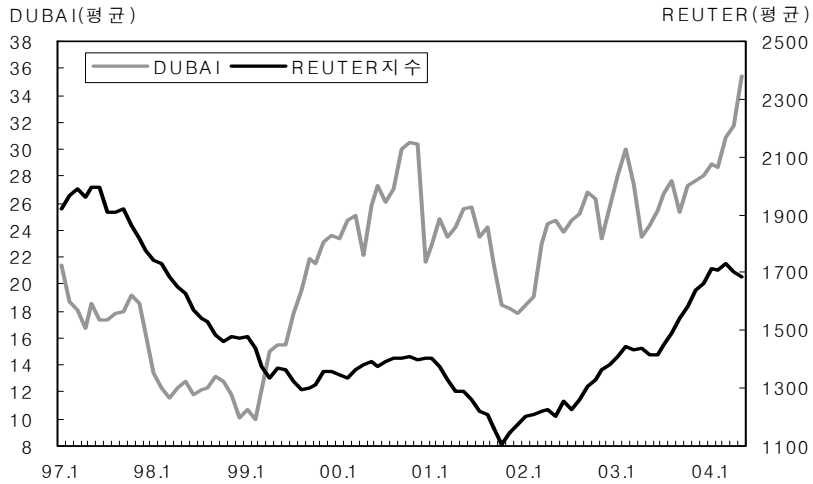
[표 38] 원자재 가격

	2001	2002	2003	200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로이터 지수	1,178.2	1,368.8	1,664.5	1,712.5	1,738.3	1,727.5	1,701.6	1,683.3	1643.0
동	1,460.5	1,542.5	2,318.0	2,517.0	2,972.0	3,076.0	2,759.0	2,832.8	2,641.2
알루미늄	1,339.5	1,346.7	1,588.8	1,641.0	1,704.8	1,710.0	1,655.0	1,679.8	1,684.3
소맥	289.0	325.0	377.0	389.0	380.8	408.0	381.5	362.0	359.0
옥수수	209.0	235.8	246.0	276.3	296.3	320.0	316.5	304.0	286.2
256메가디램	-	6.11	3.61	4.08	4.08	5.47	5.07	4.78	4.90
금	279.0	348.1	415.5	402.5	396.2	426.5	386.8	393.4	392.0

주: 기말기준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그림 15]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추이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은 중국 정부의 경기속도 조절 움직임 및 본격적인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그 상승세가 한풀 꺾여 지난해보다는 상승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6월중 하락세를 보였으나, 7월 들어 이라크 송유관 파손 및 러시아 유코스 사의 파산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상품가격지수의 경우 3월 이후의 완만한 하락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39] 원유 및 원자재 가격전망

(단위: %, US\$/bbl)

	2001	2002	2003	2004	2005
원유가격 ¹⁾	24.3	24.9	28.9	29.9	27.0
(증가율, %)	(-13.8)	(2.5)	(15.8)	(3.8)	(-10.0)
원자재가격(원유제외)	-4.0	0.5	7.1	7.6	-0.8
식료품	2.3	0.7	5.9	3.2	-1.9
농산물	-4.9	1.6	3.5	6.3	1.2
금속	-9.8	-7	11.9	15.9	-0.9

주: 1) Brent, Dubai, WTI 현물시장가격의 평균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4.

III

국내경제 전망

1.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전제
2. 실물부문
3. 고용·물가
4. 금융·외환
5. 대외거래

1.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전제

가. 대외적 여건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까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세계경제는 올해 연간으로 4% 중반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에 몇 개월 앞서 움직이는 OECD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둔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교역량은 2003년의 4.5%에서 2004년에는 6.8%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에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미국경제는 생산호조와 고용사정의 개선 등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에 걸쳐 시행된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정책 등의 효과가 소진되고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로경제는 유로화 강세로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률도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에 2.7%의 성장률을 보였던 일본경제는 수출호조, 설비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2004년에도 경기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다. 2003년에 9.1%의 경제성장을 보였던 중국경제는 2004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투자억제 정책에 따라 수출, 소비, 그리고 투자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작년에 비해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럴당 40달러(WTI 기준)를 넘어서는 최근의 고유가는 물가, 생산, 수출 등에 영향을 끼치면서 향후 국내경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제 원유시장은 지난 6월 OPEC의 산유량 증산 결정 등으로 인해 수급측면에서는 초

과공급 상태에 있는데, 경기회복으로 인한 석유소비 증대 가능성,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요인 상존, 러시아의 유코스 사태 등이 향후 유가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우리나라 수출은 물론이고 세계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 해온 IT 경기의 호황은 최소한 올해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T경기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북미 반도체산업의 주문/출하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약 1.1)을 유지하고 있어 올 연말경까지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LCD와 휴대폰의 경우는 경쟁격화와 공급확대로 가격하락이 지속될 전망이다. LCD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크리스탈 사이클(Crystal Cycle)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 공급초과 현상으로 LCD 수출여건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나. 대내적 여건

대내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부동산가격 하락,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불안 등이 하반기 경제여건을 어둡게 하고 있다. 배드뱅크를 중심으로 한 신용불량자 대책의 효과가 금융기관의 협력부족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청 저조 등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공급확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 등으로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있어서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의 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안정적인 성장유지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미시적인 조정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 기업·금융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해 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세계경제 여건의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여건의 조성보다는 소비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등 내수회복을 위한 경제 여건 조성에 주력할 것이다. 건전한 경제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고용의 확대를 위해 기업투자의 활성화, 공공분야의 고용확대 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 실물부문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회복세로 하반기에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긴축정책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등한 수출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으로 인하여 수출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면, 하반기 중 실질 GDP 성장률은 상반기(5.3%)에 비해 둔화된 4.7%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연평균으로는 실질 GDP 성장률이 5.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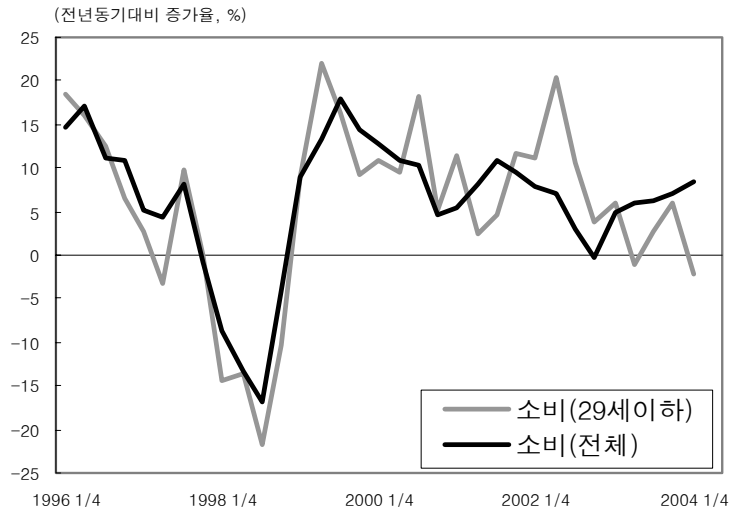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 자산소득의 감소, 가계부채 부담 지속에 따른 소비여력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 중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지연되어 연간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여건이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누적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지급 부담과 주가 조정 및 주택가격 하향 안정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감소로 가계의 소비여력은 크지 않다. 특히, 가계부채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과 2002년 당시 신용카드에 의존하여 소비를 주도했던 29세 이하 연령층의 소비부진이 전체 소비회복 모멘텀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1/4분기중 도시근로자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9.3% 증가한데 반해 소득 하위 10%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비지출이 3.2%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고, 29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1/4분기중 소비가 다시 감소세(-2.2%)로 반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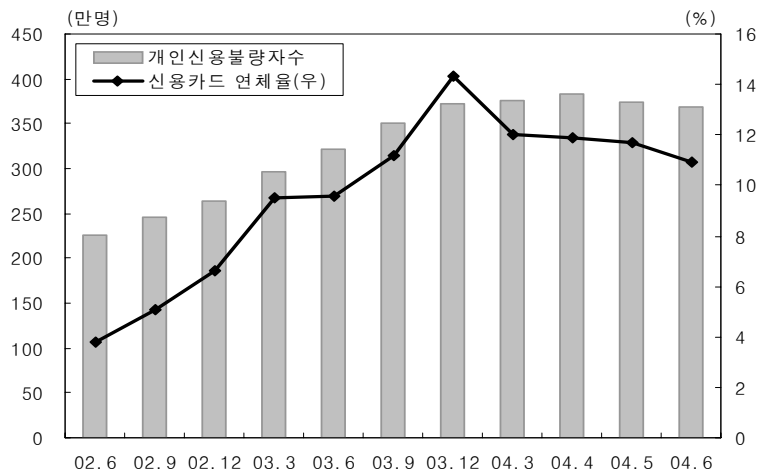
올해 3월 이후 신용카드 연체율이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

히 높은 수준(6월 10.9%)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및 연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계의 차입여건이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다. 또한, 올해 1/4분기중 가구당 가계부채 잔액(2,945만원)이 가계의 연평균 가처분

[그림 16]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그림 17] 개인 신용불량자수 및 신용카드 연체율 추이



소득(3,292만원)의 89.4%에 달하고 있고, 6월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수(369만명)가 경제활동인구의 15.7%에 달하는 등 가계부문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도 소비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 고정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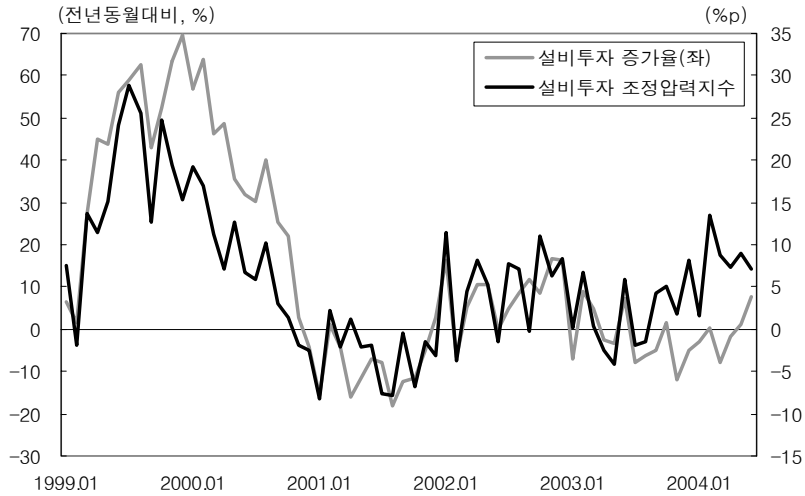
(1) 설비투자

제조업 설비가동률의 상승과 설비투자 조정압력의 증가로 설비투자가 호전될 여건이 조성되고는 있으나, 기업경영의 보수화 경향과 전반적인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올해 하반기중에도 기술적 반등 이상의 설비투자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설비투자는 하반기 중 5%대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연간으로 2.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0%를 상회하고 있고, 설비투자 장기 부진에 따른 생산능력의 저하로 설비투자 조정압력³⁾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이 설비투자 확충을 통해 생산능력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5월 이후 설비투자 추계치가 상승세로 반전하여 설비투자가 미약하게나마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실적의 양극화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데다, 외형성장보다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최근의 기업경영 풍토와 국내 제조업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설비투자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설비투자의 급감에 따른 기술적 반등 효과(technical rebound effect)로 올해 하반기중에는 지표상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설비투자 조정압력지수 = 생산증가율 - 생산능력 증가율. 지수값이 클수록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

[그림 18] 설비투자 조정압력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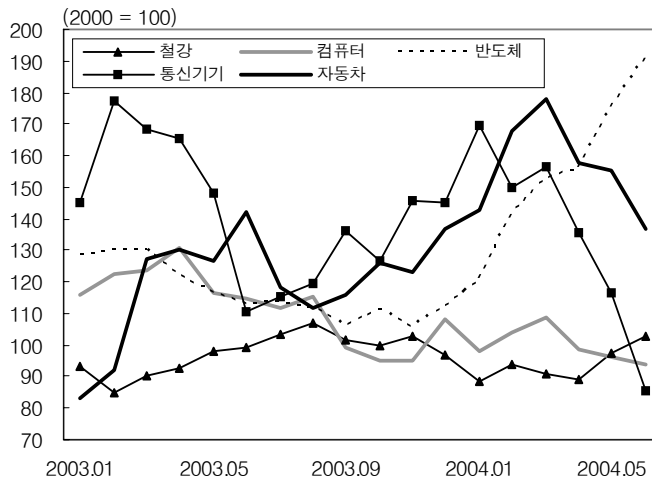
수출호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증가와 금융비용의 감소로 올해 1/4분기중 제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13.4%로 전년 동기(6.4%)에 비해 2.1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의 경상이익률이 20.3%를 기록하여 5대 기업 이외의 나머지 기업들의 경상이익률(10.1%)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수출기업의 경상이익률이 15.0%로 내수기업(11.2%)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32%)은 작년 1/4분기(31.4%)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나 기업 간 수익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기업 수익성의 개선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수익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확대로 일부 수출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의 투자 여력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이 올해 3월 중 국내 2,800여 기업을 대상으로 「2004년도 설비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설비투자를 작년대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

들은 설비투자를 6% 축소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의 투자실적은 올해에도 부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 재고 추이를 살펴보면,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재고 조정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력업종의 재고는 기준치 100을 상회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재고 조정이 충분히 진행된 일부 IT 관련 업종 위주로 투자 수요가 제한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9] 주요 업종별 재고(계절조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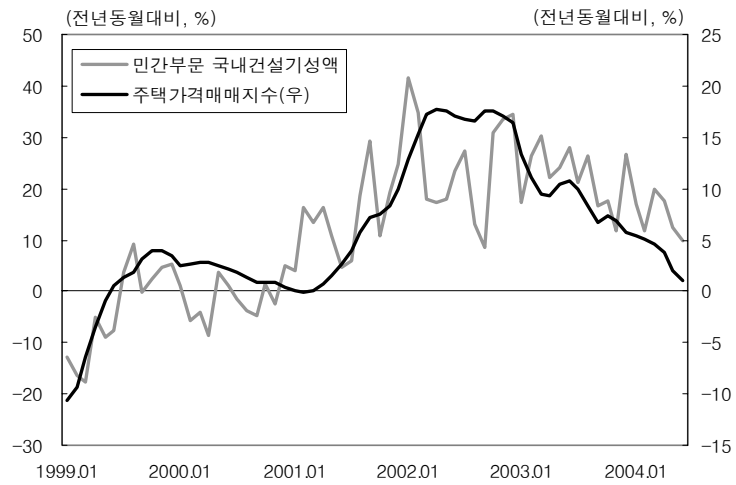


(2)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올해 7월 초에 발표된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와 SOC 투자 예산의 감축,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주택공급의 위축, 그리고 지난해 건설투자 호황에 따른 상대적 부진 요인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 중에는 증가세가 1% 대로 둔화되어 연간으로 2.8%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세의 둔화로 주택투자의 기대수익률이 감소하여 지난해 건설투자를 주도했던 민간부문의 건물건설 투자는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03년 중 이미 확보되었던 건설수주 물량을 감안할 때 건설투자가 급격히 둔화되어 감소세로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민간부문 건설기성액 및 주택가격상승률 추이



3. 고용·물가

가. 고용

고용 유발효과가 큰 내수부문의 상대적 부진으로 고용여건의 개선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률은 올해 하반기 예년 수준을 유지하여 연간으로는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 및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해 보다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확충이 IT 수출 대기업에 편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 창출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건설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내수 부문의 상대적 부진으로 고용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여건이 개선되어 취업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경제활동인구 수 역시 증가하여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는 점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물가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미약하지만, 고유가와 공공요금의 인상 등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하여 하반기에는 3.9%, 연간으로는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회복의 지연으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화환율의 하락 추세도 물가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유가와 공공요금의 가격변동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원유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04년 1월중 31달러였던 원유도입단가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4월에는 33달러를 넘어섰고, 5월에는 34달러를 상회하였다. 산업연관표 분석에 의

하면 수입원유가격이 10% 상승하였을 때 전산업의 투입비용이 0.43% 상승하여, 소비자물가는 약 0.37%의 상승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가 전망과 관련하여 중국 및 선진국의 석유소비 증가 전망,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요인, OPEC의 추가 증산 유보 가능성, 러시아의 유코스 사태 등으로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표 40] 원유도입단가 추이

(단위: 평균, 달러/배럴)

	2001	2002	2003	2004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1~5월
장기계약	24.68	24.14	28.47	30.92	31.23	32.01	33.35	34.64	32.38
현물	25.17	24.39	29.31	31.34	32.05	32.63	33.50	34.58	32.88
전체	24.86	24.24	28.73	31.03	31.47	32.15	33.40	34.62	32.52

주: 1. 평균 기준
 2. 원유도입단가는 CIF기준
 3. CIF = FOB + 수송비 + 보험료
 자료: 대한석유협회

상반기중 하향안정세를 보였던 공공요금은 7월 1일에 일제히 오르면서 고유가와 더불어 하반기 물가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요금의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 인하, 도시가스요금 동결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예상되나 생산원가 보전을 위한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 금융·외환

가. 금리

올해 하반기에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기조 유지와 국내 물가상승 압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바탕으로 하는 통화당국의 신축적인 통화정책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국·호주 등 금리인상을 단행한 주요 국가들의 통화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요 국가들의 수입수요가 급속히 둔화되어 수출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내수의 성장건인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수출의 성장기여도마저 축소되면서 콜금리 인하논의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금리 수준이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하락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시장의 수급면에서 볼 때 국고채 공급 규모는 2004년도 국고채 발행한도인 44조 2,000억원 가운데 상반기 중 25조 4,000억원의 국고채가 발행되어 하반기중 발행잔여 한도는 17조 8,000억원으로 월평균 2조 9,700억원에 불과하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통과로 적자국채 1조 3,000억원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11조원 규모의 한도 확대를 포함할 경우 하반기 중 총 발행한도는 30조원을 상회하여 월평균 5조원에 달하나 한도 확대분이 전액 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한도 확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외환당국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발행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5조원 규모의 채권운용이 예정되어 있고 시중자금도 안전한 국고채 운용 상품으로 유입되는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채권시장의 수급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통화정책기조나 채권시장 수급차원에서 볼 때 시장금리의 하

향안정화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7월 이후 예상치를 하회하는 국채발행물량과 통안채 발행 압력 완화와 더불어 기관투자자들의 채권매수여력 증가가 물량확보 노력 등 수급여건에 의해 국고채 수익률이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급락한 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또한 정부의 자금수요나 환율 변동에 따라 일시적인 국채발행물량 증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은행권의 시장성 자금조달 확대와 한국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조절 가능성 등이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유가상승 등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내수회복이 불투명하여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2/4분기 성장률이 예상외로 둔화된 점도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양호한 수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국고채 유통수익률 기준으로 하반기 4.2%, 연평균 4.4%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원/달러 환율

2004년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은 7월초 미국 경제실적의 예상외 부진 발표, 금리인상효과의 선반영 등으로 달러화 약세 현상이 크게 대두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반이후 국제 원유가가 급등하고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상향돌파하면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7월말 현재 1,170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달러화 강세현상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하반기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매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세 둔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공급우위가 지속되고 대외적으로도 미달러화의 약세 기조 유지와 일본의 경기 회복세로 인한 엔/달러 환율의 하락, 중국의 경기 연착륙 및 위안화 평가절상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반기중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에는 미달러화의 약세기조 유지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상반기중 미국의 생산과 소비 등 각종 경기관련 지표들이 개선되어 인플레이 압력이 증대되자 지난 6월말 0.25% 포인트의 연방기금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달러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요 통화에 대해 달러화 강세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경기 둔화 우려감이 다시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달러화의 강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외에도 미국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미달러화 강세를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달러화의 약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엔/달러 환율의 향방도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기회복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행의 시장개입의지가 완화되며 하반기 중 완만한 엔화절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기연착륙 가능성으로 금리인상여부는 불확실하나 위안화 평가절상 기대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수출호조가 지속되면서 달러화 공급우위가 지속되어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하반기 중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 경제상황, 수출증가율의 둔화 가능성, 외환당국의 개입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므로 하반기중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4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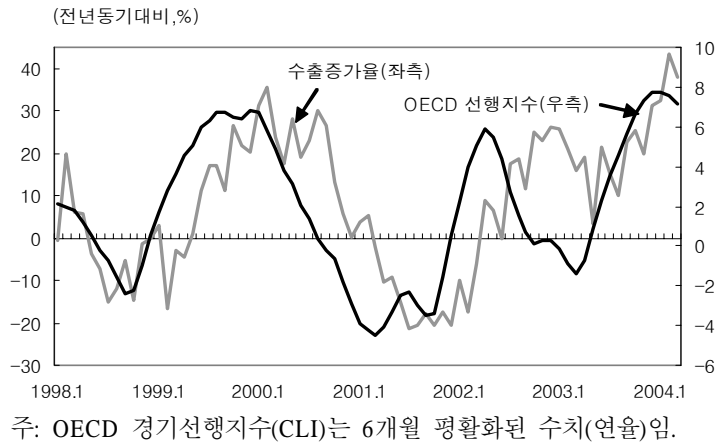
5. 대외거래

가. 수출·입

올해 하반기 중에도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선진국의 경기회복, 국산자동차의 품질향상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무선통신기기는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시장다변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는 높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의 경우 신규수요 확대에 하반기에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품목의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긴축정책, 고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은 수출을 제약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하반기 수출 증가율 급등에 따른 기술적 반락 효과도 나타나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중 38.6% 급증했던 수출(통관기준)은 하반기중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수출을 2~3개월 선행하는 OECD 선행지수도 3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수입(통관기준)은 소비·투자 등 내수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확대, 고유가의 지속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어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4%,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OECD 경기선행지수와 수출 증가율 추이



나. 경상수지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내수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하반기중 상품수지 흑자폭은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국제수지 기준)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30% 내외, 수입(국제수지 기준)은 수출호조 및 내수부진의 완화, 원화가치 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5%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폭의 확대와 특허권 사용료, 컨설팅 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에 대한 지급 증가로 큰 폭의 수지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하반기 상품수지 흑자폭의 축소와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의 지속으로 올해 상반기(132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된 63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1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 2004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2002	2003	2004				
	연간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7.0	3.1	5.3	5.3	5.3	4.7	5.0
민간소비	7.9	-1.4	-1.4	-1.5	-1.4	2.1	0.3
설비투자	7.5	-1.5	-0.3	1.0	0.4	5.5	2.9
건설투자	5.3	7.6	4.1	3.5	3.8	1.8	2.8
경상수지(억US\$)	54	123	61	71	132	63	195
수출(통관기준)	8.0	19.3	37.7	39.0	38.6	19.1	28.1
수입(통관기준)	7.8	17.5	19.2	32.6	25.7	22.4	23.9
소비자물가	2.7	3.6	3.3	3.3	3.3	3.9	3.6
실업률	3.1	3.4	3.8	3.3	3.6	3.4	3.5
국고채유통수익률(평균)	5.8	4.6	4.8	4.4	4.6	4.2	4.4
원/달러 환율(평균)	1,252	1,192	1,172	1,162	1,167	1,140	1,153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부 록

- A. 참고자료
- B. 통계편

A. 참고자료

A-1. 주요 기관별 2004년 경제 전망 비교

(단위: %, 억달러)

	전망시점	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경상수지	통관수출 (억달러, %)	통관수입 (억달러, %)	소비자 물가	실업률
NABO	04.07.30	5.0	0.3	2.9	2.8	195	2,483 (28.1)	2,215 (23.9)	3.6	3.5
재경부	03.12.30	5% 대	-	-	-	50~60	-	-	3% 내외	3% 초반
KDI	03.10.17	4.8	4.6	6.2	4.3	36	(14.0)	(15.3)	2.7	3.4
	03.12.19	5.3	4.5	9.8	2.1	74	(15.0)	(16.7)	2.8	3.4
	04.04.21	5.5	3.3	8.5	1.1	166	(25.9)	(25.4)	3.1	3.3
	04.07.15	5.2	0.7	6.1	2.6	247	2,567 (29.9)	2,201 (25.4)	3.5	3.4
한 은	03.12.16	5.2	3.2	6.5	3.3	60	(11.6)	(12.9)	2.9	-
	04.07.08	5.2	0.5	3.1	3.2	220	2,520 (30.0)	2,250 (25.8)	3.6	-
KIET	03.11.24	5.5	4.3	9.8	3.1	-	(12.2)	(13.8)	2.9	-
	04.06.10	5.5	2.6	6.8	3.1	-	(26.3)	(24.1)	-	-
KIF	03.11.06	5.8	3.9	11.1	2.6	65.3	(18.8)	(20.4)	2.7	3.2
삼 성	03.09.24	4.3	2.9	4.2	3.0	24.7	(8.5)	(9.7)	2.8	3.0
	04.04.26	5.3	3.0	5.3	2.8	172	(26.3)	(25.9)	3.4	3.4
현 대	04.04.20	5.3	4.5	11.5	3.9	123	(23.8)	(23.6)	3.5	3.3
L G	04.01.05	5.1	3.9	7.3	3.5	83	(15.9)	(16.2)	2.8	3.3
	04.04.22	5.6	3.0	7.3	1.2	171	(26.4)	(24.7)	3.4	3.2
	04.07.14	5.0	-0.2	3.8	2.3	220	(30.3)	(26.8)	3.4	3.4
한경연	03.12.09	4.8	2.5	6.2	3.2	40.1	(11.4)	(14.0)	2.6	3.3
	04.04.27	5.0	1.8	5.0	1.5	138.9	(22.0)	(22.0)	3.5	3.6
	04.06.24	5.0	0.6	2.2	0.1	188.6	(27.3)	(25.1)	3.5	3.4
IMF	03.09.18	4.7	-	-	-	94	-	-	3.0	3.3
	04.02.25	5.5	-	-	-	94	-	-	3.1	3.3
G.I.	03.11.12	6.1	-	-	-	46.8	2,074 (8.6)	1,939 (11.1)	3.7	-
OECD	03.11.26	4.8	2.5	3.6		1.3	-	-	2.7	3.3
	04.05.11	5.6	2.5	4.7		2.2	-	-	3.2	3.3

- 주: 1. OECD 투자증가율은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임.
 2. KDI, 한국경제연구원, G.I.의 수출·입은 국제수지 기준임.
 3. OECD 경상수지는 대 GDP비율임.

A-2. 환율 및 국제 금리 전망

	2003	2004 ^f	2005 ^f	2006 ^f	2007 ^f	2008 ^f
미국 U.S.A.						
단기금리(3개월)	1.13	1.14	2.37	3.00	3.19	4.13
장기금리(10년)	4.02	4.50	5.04	5.22	5.48	5.95
일본 Japan						
단기금리(3개월)	0.04	0.07	0.47	1.34	1.82	2.05
장기금리(10년)	0.99	1.32	1.74	2.69	3.28	3.63
환율(평균)	115.9	104.7	95.1	90.5	90.5	89.0
독일 Germany						
단기금리(3개월)	2.30	2.20	2.70	3.60	3.70	3.70
장기금리(10년)	4.03	4.05	4.07	4.51	4.93	5.00
환율(평균)	0.89	0.81	0.78	0.76	0.75	0.75
영국 U.K.						
단기금리(3개월)	3.70	4.50	5.10	4.40	4.00	3.70
장기금리(10년)	4.52	4.94	5.28	5.16	5.06	5.00
환율(평균)	0.61	0.53	0.53	0.56	0.56	0.55
캐나다 Canada						
단기금리(3개월)	2.93	2.33	3.12	3.56	3.94	4.00
장기금리(10년)	4.49	4.75	5.19	5.21	5.24	5.27
환율(평균)	1.40	1.29	1.25	1.23	1.23	1.21

자료: Global Insight,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2004.

A-3. 주요 선진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f
미국 U.S.A.					
경제성장률(%)	3.7	0.5	2.2	3.1	4.8
소비자물가(%)	3.4	2.8	1.6	2.3	2.2
경상수지(10억달러)	-411.5	-393.7	-480.9	-541.8	-589.8
일본 Japan					
경제성장률(%)	2.8	0.4	-0.3	2.5	4.1
소비자물가(%)	-0.7	-0.7	-0.9	-0.3	-0.1
경상수지(10억달러)	119.6	89.3	111.8	138.2	171.5
독일 Germany					
경제성장률(%)	3.1	1.0	0.2	-0.1	1.0
소비자물가(%)	1.3	2.0	1.4	1.1	1.2
경상수지(10억달러)	-30.6	4.9	64.5	61.0	71.9
프랑스 France					
경제성장률(%)	4.2	2.1	1.2	0.2	1.6
소비자물가(%)	1.7	1.6	1.9	2.1	1.6
경상수지(10억달러)	19.5	25.7	27.5	11.2	20.4
영국 U.K.					
경제성장률(%)	3.8	2.1	1.7	2.2	3.3
소비자물가(%)	2.1	2.1	2.2	2.9	2.6
경상수지(10억달러)	-19.5	-18.0	-19.0	-30.7	-42.6
이탈리아 Italy					
경제성장률(%)	3.3	1.7	0.4	0.4	0.8
소비자물가(%)	2.5	2.8	2.5	2.6	2.2
경상수지(10억달러)	-6.3	-1.0	-6.1	-21.7	-19.2
호주 Australia					
경제성장률(%)	3.2	2.5	3.8	3.0	3.7
소비자물가(%)	4.5	4.4	3.0	2.8	2.3
경상수지(10억달러)	-15.5	-8.7	-17.3	-28.0	-35.0
캐나다 Canada					
경제성장률(%)	5.3	1.9	3.3	1.7	3.0
소비자물가(%)	2.7	2.5	2.2	2.8	1.1
경상수지(10억달러)	30.7	26.9	23.4	18.4	16.1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Second Quarter 2004.

A-4. NIES와 BRICS의 경제 동향 및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f
대만 Taiwan					
경제성장률(%)	5.9	-2.2	3.6	3.2	5.0
소비자물가(%)	1.3	0.0	-0.2	-0.3	0.9
경상수지(10억달러)	8.9	17.9	25.7	28.6	24.9
홍콩 Hong Kong					
경제성장률(%)	10.2	0.5	2.3	3.3	5.4
소비자물가(%)	-3.7	-1.6	-3.0	-2.6	-0.2
경상수지(10억달러)	7.1	9.9	14.4	17.4	16.7
싱가포르 Singapore					
경제성장률(%)	9.4	-2.4	2.2	1.1	5.1
소비자물가(%)	1.3	1.0	-0.4	0.5	1.2
경상수지(10억달러)	12.6	14.2	15.8	23.0	24.6
인도네시아 Indonesia					
경제성장률(%)	4.9	3.5	3.7	4.1	4.7
소비자물가(%)	3.7	11.5	11.9	6.6	4.8
경상수지(10억달러)	8.0	6.9	7.4	7.8	5.9
태국 Thailand					
경제성장률(%)	4.8	2.1	5.4	6.7	7.2
소비자물가(%)	1.6	1.7	0.6	1.8	2.2
경상수지(10억달러)	9.3	6.2	7.6	8.0	7.8
중국 China					
경제성장률(%)	8.0	7.3	8.0	9.1	8.1
소비자물가(%)	0.4	0.7	-0.8	1.2	2.7
경상수지(10억달러)	20.5	17.4	35.4	20.2	20.5
인도 India					
경제성장률(%)	4.0	5.6	4.3	8.3	6.4
소비자물가(%)	4.0	3.8	4.3	3.8	5.4
경상수지(10억달러)	-2.6	0.8	4.1	1.7	-1.6
브라질 Brazil					
경제성장률(%)	4.4	1.4	4.5	-0.2	3.6
소비자물가(%)	7.0	6.8	8.5	14.7	6.9
경상수지(10억달러)	-25.2	-23.6	-8.7	2.7	-2.5
러시아 Russia					
경제성장률(%)	10.0	5.1	4.7	7.3	6.2
소비자물가(%)	21.0	21.6	15.8	13.7	10.7
경상수지(10억달러)	46.8	33.6	29.9	35.9	34.2

자료: Global Insight,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Second Quarter 2004.

B. 통계편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단위: 십억원)

	국내총생산	민간	건설투자	설비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1997	523,034.7	298,385.4	115,477.0	70,308.3	117,689.5	147,695.6	
1998	487,183.5	258,316.9	101,196.9	40,586.1	136,404.4	111,102.7	
1999	533,399.3	288,025.6	97,403.8	55,512.9	161,980.9	147,491.5	
2000	578,664.5	312,300.5	96,676.2	74,160.7	199,248.9	178,657.9	
2001	600,865.9	327,684.5	102,437.6	67,488.4	190,573.6	168,081.3	
2002	642,748.1	353,560.3	107,882.8	72,556.4	222,086.9	194,320.9	
2003	662,474.4	348,542.1	116,057.5	71,435.9	263,676.7	215,345.7	
1999							
	I	117,907.7	69,282.1	18,085.3	11,502.7	35,584.5	33,202.9
	II	131,841.4	69,691.8	26,486.3	13,409.3	41,428.3	36,692.9
	III	133,375.6	72,064.9	25,146.1	14,369.5	41,212.2	36,338.6
	IV	150,274.6	76,986.8	27,686.1	16,231.4	43,756.0	41,257.1
2000							
	I	133,383.4	77,495.7	17,523.4	18,544.3	46,666.7	44,973.0
	II	144,171.4	76,781.7	26,470.3	19,183.7	50,317.1	44,721.9
	III	144,350.1	77,587.4	25,040.0	18,842.5	51,319.8	44,295.5
	IV	156,759.7	80,435.8	27,642.5	17,590.2	50,945.3	44,667.4
2001							
	I	138,047.3	79,062.4	17,690.7	16,800.8	48,889.6	43,455.0
	II	149,503.6	80,175.9	26,688.9	17,157.1	47,865.8	40,046.5
	III	149,311.5	81,903.4	27,448.5	16,175.3	45,917.5	40,687.7
	IV	164,003.6	86,542.8	30,609.6	17,355.2	47,900.7	43,892.1
2002							
	I	147,076.1	86,827.5	19,630.2	17,349.7	49,583.4	44,193.7
	II	159,990.3	87,165.2	28,299.5	18,533.4	55,855.3	47,759.3
	III	159,407.1	88,253.5	26,780.1	17,647.5	55,299.6	48,955.4
	IV	176,274.6	91,314.1	33,173.0	19,025.8	61,348.6	53,412.4
2003							
	I	152,491.3	87,082.7	21,196.1	17,678.1	59,562.2	51,401.6
	II	163,493.5	85,582.4	30,359.3	18,420.4	61,786.4	50,691.8
	III	163,301.5	86,594.2	28,890.7	16,773.8	65,471.7	52,955.1
	IV	183,188.1	89,282.8	35,611.3	18,563.7	76,856.4	60,297.2
2004							
	I	160,617.7	85,901.1	22,070.3	17,633.8	76,957.7	57,790.8

주: 2000년 기준 불변계열 자료이며, 2003년 이후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증가율)

(단위: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1997	4.7	3.3	2.3	-9.6	21.6	3.2
1998	-6.9	-13.4	-12.4	-42.3	15.9	-24.8
1999	9.5	11.5	-3.7	36.8	18.8	32.8
2000	8.5	8.4	-0.7	33.6	23.0	21.1
2001	3.8	4.9	6.0	-9.0	-4.4	-5.9
2002	7.0	7.9	5.3	7.5	16.5	15.6
2003	3.1	-1.4	7.6	-1.5	18.7	10.8
1999						
I	5.9	8.3	-8.8	10.6	11.3	27.0
II	9.7	11.1	-1.7	35.8	17.3	31.2
III	11.1	13.0	-2.5	46.9	23.1	40.2
IV	10.9	13.6	-3.3	54.1	22.7	32.8
2000						
I	13.1	11.9	-3.1	61.2	31.1	35.4
II	9.4	10.2	-0.1	43.1	21.5	21.9
III	8.2	7.7	-0.4	31.1	24.5	21.9
IV	4.3	4.5	-0.2	8.4	16.4	8.3
2001						
I	3.5	2.0	1.0	-9.4	4.8	-3.4
II	3.7	4.4	0.8	-10.6	-4.9	-10.5
III	3.4	5.6	9.6	-14.2	-10.5	-8.1
IV	4.6	7.6	10.7	-1.3	-6.0	-1.7
2002						
I	6.5	9.8	11.0	3.3	1.4	1.7
II	7.0	8.7	6.0	8.0	16.7	19.3
III	6.8	7.8	-2.4	9.1	20.4	20.3
IV	7.5	5.5	8.4	9.6	28.1	21.7
2003						
I	3.7	0.3	8.0	1.9	20.1	16.3
II	2.2	-1.8	7.3	-0.6	10.6	6.1
III	2.4	-1.9	7.9	-5.0	18.4	8.2
IV	3.9	-2.2	7.4	-2.4	25.3	12.9
2004						
I	5.3	-1.4	4.1	-0.3	29.2	12.4

주: 1. 2000년 기준 불변계열 자료이며, 2003년 이후는 잠정치임.

2. 분기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전경련	전경련
		전년동월비		순환변동치		BSI(실적)	BSI(전망)
2000	100.0	3.5	100.0	104.0	100.0	103.2	93.0
2001	98.6	-1.0	103.3	100.7	108.1	95.1	91.2
2002	107.7	8.0	111.0	101.0	113.8	117.2	109.7
2003	108.5	1.3	116.7	99.1	119.5	99.0	89.1
2001							
III	98.6	-0.6	103.4	100.0	109.1	97.6	85.0
IV	100.8	2.3	105.6	100.4	111.1	87.4	94.9
2002							
I	105.6	7.5	107.9	100.8	112.1	119.2	118.1
II	108.9	10.8	110.4	101.4	112.8	135.2	121.4
III	107.8	7.8	112.0	101.0	114.6	111.2	101.2
IV	108.6	5.8	113.6	100.8	115.5	103.1	98.0
2003							
I	108.1	2.9	115.3	100.5	117.4	96.7	86.4
II	106.7	-0.3	115.3	98.8	118.9	98.2	84.6
III	108.7	0.3	116.4	98.0	120.3	97.1	84.5
IV	110.5	2.4	119.7	99.2	121.6	103.9	100.9
2004							
I	111.8	3.4	122.9	100.1	120.9	106.1	96.7
II	111.8	3.1	124.4	99.6	120.9	103.2	92.9
2003							
1	109.3	5.1	115.1	101.0	114.9	91.9	90.2
2	108.5	3.5	115.2	100.5	115.1	89.3	79.8
3	107.2	1.4	115.3	100.1	116.1	109.0	89.3
4	106.5	0.1	115.1	99.3	116.1	90.2	87.7
5	106.2	-0.9	115.1	98.7	116.9	108.1	84.7
6	107.6	-0.2	115.3	98.4	117.4	96.4	81.5
7	108.2	-0.1	115.5	97.9	117.8	90.3	79.1
8	109.2	0.6	116.2	98.0	118.3	91.4	85.1
9	109.0	0.4	117.1	98.1	118.5	109.6	89.4
10	110.0	1.5	118.7	98.9	119.0	110.3	103.4
11	110.5	2.2	119.6	99.1	119.5	102.8	98.9
12	111.3	3.1	120.7	99.5	120.1	98.7	100.4
2004							
1	111.4	3.1	121.6	99.6	120.8	99.8	90.7
2	112.0	3.6	123.2	100.3	121.0	104.9	95.3
3	112.0	3.6	123.9	100.4	120.9	113.6	104.2
4	112.1	3.5	124.5	100.3	120.8	104.3	101.7
5	111.7	3.0	124.5	99.7	121.0	113.2	90.2
6	111.7	2.9	124.3	98.9	120.9	92.1	86.8

자료: 통계청, 전경련

산업활동지수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서비스생산지수		제조업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평균가동률
2000	100.0		100.0		104.9		100.0		78.6
2001	100.7		101.3		105.3		105.6		75.3
2002	108.8		109.3		104.5		116.0		78.4
2003	114.4		113.9		110.5		117.5		78.3
2001									
III	99.3	-1.1	99.9	-0.5	105.6	7.5	106.0	5.0	75.3
IV	104.4	0.4	105.0	1.9	105.3	0.4	110.5	7.4	73.8
2002									
I	103.7	6.8	104.9	7.4	101.9	-8.9	110.6	10.0	77.9
II	109.1	7.2	109.6	6.8	102.8	-5.9	116.6	10.6	78.3
III	106.2	6.9	106.2	6.3	102.1	-3.3	116.5	9.9	78.9
IV	116.3	11.4	116.4	10.9	104.5	-0.8	120.2	8.8	78.5
2003									
I	110.0	6.1	109.6	4.5	111.7	9.6	114.1	3.2	78.5
II	112.6	3.2	112.7	2.8	112.3	9.2	117.9	1.1	77.3
III	109.6	3.2	108.9	2.5	110.4	8.1	117.2	0.6	76.9
IV	125.4	7.8	124.3	6.8	110.5	5.7	120.7	0.4	80.4
2004									
I	122.1	11.0	120.3	9.9	116.5	4.2	115.0	0.8	81.5
II	126.4	12.3	124.5	10.5	115.7	3.0	118.1	0.1	80.5
2003									
1	110.0	3.9	109.0	3.5	109.4	1.3	115.7	5.3	78.7
2	103.4	9.9	103.6	7.5	110.4	5.7	108.5	3.5	79.0
3	116.6	5.0	116.2	2.8	111.7	9.6	118.0	0.9	77.9
4	113.7	2.1	113.7	1.4	113.1	10.0	118.0	1.9	77.7
5	111.6	-0.6	111.9	-1.2	113.0	11.3	119.0	-0.3	76.3
6	112.4	8.6	112.5	8.9	112.3	9.2	117.0	2.0	78.0
7	108.3	1.0	106.8	1.2	113.3	8.7	117.9	0.9	74.7
8	108.2	1.6	107.4	1.3	113.0	7.5	116.3	0.8	77.2
9	112.3	7.0	112.6	5.2	110.4	8.1	117.4	0.2	78.9
10	126.1	7.8	125.5	7.0	109.6	6.1	119.6	0.2	81.1
11	122.3	4.9	121.5	3.7	109.4	5.9	117.8	0.1	79.6
12	127.8	10.9	126.0	9.9	110.5	5.7	124.9	1.1	80.4
2004									
1	115.2	4.7	113.5	4.1	113.3	3.6	112.6	-2.7	80.4
2	120.9	16.9	118.8	14.7	116.1	5.2	111.4	2.7	83.4
3	130.1	11.6	128.9	10.8	116.4	4.2	121.0	2.5	80.6
4	126.3	11.3	125.0	10.1	114.8	1.5	118.1	0.1	80.5
5	126.7	13.5	124.1	11.0	117.0	3.5	118.7	-0.3	81.3
6	126.2	12.3	124.4	10.6	115.7	3.0	117.6	0.5	79.8

자료: 통계청

주요 소비지표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내구소비재 출하		소비심리지수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소비자 평가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2000	100.0	9.8	100.0	10.2	100.0	15.7	91.0	98.1
2001	106.6	6.6	103.4	3.4	105.8	5.8	81.9	95.9
2002	115.4	8.3	111.6	7.9	121.1	14.5	98.3	104.7
2003	113.9	-1.3	113.3	1.5	128.5	6.1	66.5	93.2
2001								
III	105.8	7.2	104.3	6.2	108.2	11.8	96.2	84.7
IV	112.7	8.6	107.6	3.9	111.8	7.8	96.8	83.9
2002								
I	111.7	10.2	107.5	8.3	113.2	16.5	108.0	101.3
II	115.4	8.6	109.7	6.9	118.9	12.1	109.7	107.6
III	113.6	7.4	108.8	4.3	117.7	8.8	106.0	101.5
IV	120.7	7.1	120.3	11.8	134.8	20.6	95.1	83.0
2003								
I	113.4	1.5	109.8	2.1	120.8	6.7	94.3	72.3
II	113.4	-1.7	108.6	-1.0	122.8	3.3	93.6	64.8
III	110.8	-2.5	108.6	-0.2	120.7	2.5	91.1	62.0
IV	118.1	-2.2	126.1	4.8	149.9	11.2	94.0	66.8
2004								
I	113.7	0.3	117.4	6.9	138.7	14.8	96.2	70.1
II	113.4	0.0	119.5	10.0	148.1	20.6	95.6	71.0
2003								
1	119.1	6.6	111.4	1.2	114.7	4.4	79.6	96.4
2	105.4	0.5	103.8	5.4	117.2	14.1	73.5	96.1
3	116.3	-1.9	114.1	0.3	130.6	2.9	63.9	90.4
4	113.2	-2.5	112.4	-0.8	129.7	3.7	64.7	94.5
5	115.8	-1.7	106.0	-7.3	117.7	-6.1	67.0	94.5
6	112.1	-0.2	107.3	5.7	121.0	13.9	62.7	91.7
7	110.2	-1.5	104.2	-0.5	111.5	-0.9	62.1	90.8
8	109.0	-2.4	106.8	-2.7	116.8	-2.7	63.9	92.0
9	113.9	-2.7	114.9	2.8	133.7	11.0	59.9	90.4
10	117.6	-1.4	128.3	4.0	154.4	8.5	62.7	91.5
11	116.1	-3.6	122.6	0.7	147.8	5.9	68.4	94.6
12	121.1	-1.1	127.4	10.0	147.4	20.3	69.2	96.0
2004								
1	116.1	-2.5	111.6	0.2	125.0	9.0	72.6	98.0
2	107.9	2.4	115.4	11.2	140.9	20.2	71.9	96.3
3	117.2	0.8	125.1	9.6	150.2	15.0	68.5	94.4
4	113.2	0.1	119.9	6.7	146.0	12.6	74.9	99.9
5	113.1	-2.3	119.9	13.2	150.2	27.6	70.7	94.8
6	113.9	1.6	118.8	10.7	148.2	22.5	67.3	92.2

자료: 통계청

주요 투자지표

(단위: 10억원, %)

	설비투자추계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기성액		국내건설수주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00	100.0	30.9	20,465.0	11.7	45,989.6	-3.1	41,777.5	15.1
2001	90.9	-9.1	20,250.7	-1.0	50,576.3	10.0	50,994.9	22.1
2002	98.5	8.4	24,510.7	21.0	56,215.6	11.2	67,833.7	33.0
2003	96.2	-2.3	22,435.9	-8.5	66,774.7	18.8	83,072.1	22.5
2001								
III	89.4	-13.0	4,925.2	-5.7	13,083.5	11.7	10,657.4	25.5
IV	89.6	-4.9	4,834.9	-7.1	14,748.4	15.8	19,147.1	66.7
2002								
I	95.8	4.2	6,702.6	33.3	11,632.2	17.6	15,997.7	93.1
II	99.3	6.9	5,961.8	9.2	13,935.6	8.4	16,161.4	25.2
III	96.8	8.3	5,903.9	19.9	13,642.3	4.3	12,744.6	19.6
IV	102.0	13.8	5,942.4	22.9	17,005.6	15.3	22,929.9	19.8
2003								
I	98.3	2.6	5,576.7	-16.8	14,034.6	20.7	16,520.1	3.3
II	99.5	0.2	5,758.0	-3.4	16,497.4	18.4	24,319.6	50.5
III	90.6	-6.4	5,458.3	-7.5	16,081.9	17.9	18,814.1	47.6
IV	96.6	-5.3	5,642.9	-5.0	20,160.8	18.6	23,418.3	2.1
2004								
I	94.6	-3.8	6,637.2	19.0	15,405.8	9.8	14,174.2	-14.2
II	102.1	2.6	6,827.3	18.6	18,238.0	10.6	17,584.4	-27.7
2003								
1	82.4	-6.9	1,815.0	4.2	4,535.9	21.5	5,243.1	23.6
2	95.6	8.9	1,833.3	12.4	4,482.4	19.9	5,951.3	45.0
3	116.8	5.0	1,928.4	-42.1	5,016.3	20.6	5,325.7	-30.4
4	101.9	-2.5	1,927.9	-0.7	5,156.4	15.5	5,783.4	8.1
5	95.4	-3.5	1,936.3	3.1	5,402.9	18.5	7,370.5	32.6
6	101.3	7.2	1,893.8	-11.6	5,938.2	20.9	11,165.8	112.7
7	90.9	-8.0	1,632.8	-12.4	5,273.6	17.1	6,335.8	68.2
8	88.5	-6.3	1,762.9	-23.3	5,417.3	23.2	6,846.2	38.6
9	92.3	-4.9	2,062.7	18.5	5,390.9	13.7	5,632.1	39.5
10	97	1.5	2,072.1	4.7	5,915.5	18.0	6,199.9	16.7
11	90.3	-12.0	1,706.8	-10.8	6,192.6	12.2	6,260.9	-14.8
12	102.5	-5.0	1,864.1	-9.1	8,052.7	24.4	10,957.5	6.7
2004								
1	79.8	-3.2	2,048.3	12.9	4,811.9	6.1	4,492.0	-14.3
2	96.1	0.5	2,067.0	12.7	4,727.1	5.5	4,529.2	-23.9
3	107.8	-7.7	2,521.9	30.8	5,866.9	17.0	5,153.0	-3.2
4	100.3	-2.5	2,286.4	18.6	5,912.5	14.7	4,939.5	-14.6
5	96.6	1.3	2,303.5	18.9	5,924.3	9.7	5,604.0	-24.0
6	109.3	7.9	2,237.4	18.1	6,401.3	7.8	7,040.9	-36.9

자료: 통계청

고용 및 임금

(단위: 천명, %, 원)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임금		노동일수 (월평균)
		취업자	실업자			제조업	
2000	22,069	21,156	913	4.1	1,727,339	1,601,468	24.6
2001	22,417	21,572	845	3.8	1,824,826	1,702,350	24.2
2002	22,877	22,169	708	3.1	2,036,207	1,907,117	24.0
2003	22,916	22,139	777	3.4	2,228,491	2,073,992	23.8
2001							
III	22,655	21,900	755	3.3	1,865,271	1,748,805	24.3
IV	22,674	21,923	751	3.3	1,906,936	1,778,716	24.1
2002							
I	22,339	21,511	829	3.7	1,939,316	1,787,095	23.2
II	23,112	22,423	689	3.0	1,943,432	1,793,669	24.5
III	23,067	22,416	652	2.8	2,081,225	1,953,417	23.6
IV	22,989	22,326	663	2.9	2,180,695	2,093,155	24.7
2003							
I	22,439	21,633	806	3.6	2,204,645	2,038,416	23.8
II	23,055	22,303	751	3.3	2,106,507	1,921,787	24.2
III	23,050	22,295	756	3.3	2,263,921	2,108,094	23.3
IV	23,119	22,325	794	3.4	2,338,134	2,224,964	24.5
2004							
I	22,982	22,104	878	3.8	2,294,141	2,169,016	23.5
II	23,531	22,744	787	3.3	-	-	-
2003							
1	22,352	21,562	789	3.5	2,511,545	2,387,360	24.2
2	22,320	21,498	822	3.7	2,053,000	1,876,980	22.6
3	22,644	21,837	807	3.6	2,049,389	1,850,907	24.5
4	22,912	22,156	756	3.3	2,110,473	1,932,985	24.7
5	23,114	22,370	744	3.2	1,935,255	1,741,462	24.1
6	23,138	22,383	755	3.3	2,273,793	2,090,913	23.9
7	23,238	22,456	781	3.4	2,157,598	2,011,279	24.3
8	22,883	22,126	756	3.3	2,247,760	2,114,594	23.2
9	23,031	22,301	730	3.2	2,386,405	2,198,409	22.5
10	23,218	22,452	765	3.3	2,126,587	2,017,836	25.0
11	23,218	22,425	792	3.4	2,017,523	1,819,736	24.4
12	22,922	22,096	825	3.6	2,870,292	2,837,319	25.1
2004							
1	22,790	21,936	854	3.7	2,507,996	2,372,647	22.3
2	22,906	22,005	900	3.9	2,196,532	2,106,600	23.3
3	23,249	22,371	879	3.8	2,177,895	2,027,800	24.9
4	23,482	22,673	809	3.4	2,214,623	2,096,647	24.2
5	23,527	22,738	788	3.3	-	-	-
6	23,585	22,822	763	3.2	-	-	-

자료: 통계청

물가지수

년월중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총지수	증가율	근원	증가율	총지수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2000	100.0	2.3	100.0	1.9	100.0	2.0	100.0	-1.0	100.0	7.7
2001	104.1	4.1	103.6	3.6	99.5	-0.5	96.2	-3.8	103.5	3.5
2002	106.9	2.7	106.7	3.0	99.2	-0.3	89.5	-7.0	97.1	-6.2
2003	110.7	3.6	110.0	3.1	101.4	2.2	87.5	-2.2	98.9	1.8
2001										
II	104.1	5.0	103.5	3.9	100.2	3.1	99.6	9.8	107.9	11.3
III	104.7	4.2	104.0	3.7	99.4	2.0	93.8	6.3	103.4	4.9
IV	104.5	3.4	104.5	3.6	98.1	0.0	89.8	0.9	96.3	-4.6
2002										
I	105.5	2.5	105.5	2.9	98.3	-0.2	92.8	-4.0	97.5	-6.1
II	106.9	2.7	106.6	3.0	99.7	1.2	91.0	-6.1	98.8	-5.6
III	107.4	2.6	107.0	2.9	99.2	1.6	86.4	-6.9	95.1	-4.8
IV	107.9	3.3	107.7	3.1	99.7	4.0	87.8	-2.0	97.1	4.3
2003										
I	109.8	4.1	108.9	3.2	101.2	3.0	89.1	-3.9	100.9	3.5
II	110.5	3.4	110.0	3.2	101.0	1.3	86.9	-4.5	97.2	-1.6
III	110.8	3.2	110.3	3.1	101.1	1.9	85.7	-0.1	96.4	1.4
IV	111.7	3.5	110.6	2.7	102.3	2.6	88.3	0.6	101.0	4.0
2004										
I	113.4	3.3	111.9	2.8	105.5	4.2	91.4	2.6	105.7	4.8
2003										
1	109.0	3.8	108.4	3.1	100.5	2.8	86.9	-4.3	98.0	2.5
2	109.6	3.9	108.6	3.0	101.1	2.8	89.0	-3.6	101.4	5.2
3	110.9	4.5	109.7	3.4	102.1	3.3	91.4	-3.9	103.2	2.8
4	110.7	3.7	109.8	3.2	101.5	1.9	88.4	-7.1	98.5	-3.5
5	110.5	3.2	110.0	3.1	101.0	1.0	86.3	-5.2	96.4	-2.5
6	110.2	3.0	110.2	3.3	100.5	1.1	86.2	-0.9	96.6	1.3
7	110.1	3.2	110.1	3.1	100.7	1.6	85.8	0.5	96.6	3.2
8	110.6	3.0	110.3	3.2	101.1	1.9	86.2	-0.1	97.2	2.6
9	111.6	3.3	110.5	3.1	101.5	2.1	85.2	-2.6	95.5	-1.5
10	111.7	3.7	110.4	2.8	101.8	2.2	86.2	-3.4	98.4	-0.8
11	111.5	3.4	110.5	2.7	102.2	2.4	88.4	1.9	101.1	6.4
12	112.0	3.4	111.0	2.8	102.9	3.1	90.3	3.3	103.4	6.5
2004										
1	112.7	3.4	111.4	2.8	104.3	3.8	91.8	5.7	105.3	7.4
2	113.2	3.3	111.5	2.7	105.6	4.5	91.2	2.4	105.1	3.7
3	114.3	3.1	112.7	2.7	106.6	4.4	91.2	-0.2	106.6	3.3
4	114.3	3.3	112.8	2.7	107.1	5.5	91.0	3.0	106.6	8.2
5	114.2	3.3	113.0	2.7	107.4	6.3	93.9	8.9	110.5	14.6
6	114.2	3.6	113.2	2.7	107.3	6.8	92.4	7.3	108.6	12.4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년월중	총수입		총지출 및 운용자		통합재정수지	
	전년동기비		전년동기비		전년동기비	
2000	135.8	25.8	129.3	6.9	6.5	-150.0
2001	144.0	6.1	136.8	5.8	7.2	11.4
2002	158.7	10.2	136.0	-0.5	22.7	211.9
2003	171.7	8.2	163.6	20.2	8.1	-64.1
2001						
I	43.0	23.5	30.7	5.3	12.3	119.6
II	32.4	-16.1	31.7	10.4	0.8	-92.0
III	30.9	-10.0	33.5	6.8	-2.6	-189.7
IV	37.8	34.6	40.9	2.1	-3.2	-73.3
2002						
I	38.1	-11.3	29.9	-2.6	8.2	-33.3
II	40.8	25.8	32.9	3.9	7.9	887.5
III	40.7	31.7	28.7	-14.4	12.0	-561.5
IV	39.1	3.6	44.6	9.0	-5.5	71.9
2003						
I	44.7	17.4	34.5	15.2	10.2	24.4
II	39.9	-2.2	46.6	41.7	-6.7	-184.8
III	42.0	3.3	35.9	25.3	6.2	-48.3
IV	45.0	15.2	46.6	4.5	-1.5	-90.9
2004						
I	47.2	5.4	50.1	45.1	-2.9	-128.4
2003						
1	16.3	-0.8	9.4	33.4	7.0	-26.1
2	26.2	-2.7	18.7	16.7	7.5	-31.2
3	45.0	17.9	34.7	15.9	10.2	25.1
4	62.8	6.5	50.4	20.9	12.4	-28.3
5	73.6	3.1	56.6	16.3	17.1	-25.0
6	84.6	7.2	81.1	29.1	3.5	-78.3
7	103.5	6.6	98.6	37.0	4.9	-80.5
8	111.2	7.3	109.8	36.5	1.5	-93.7
9	126.8	6.0	118.2	29.2	8.6	-69.3
10	146.7	6.0	134.1	28.5	12.7	-62.8
11	155.0	8.5	147.5	24.4	7.5	-69.2
12	171.7	8.2	163.6	20.2	8.1	-64.1
2004						
1	16.5	0.8	12.3	31.2	0.4	-94.0
2	24.8	-5.5	28.5	52.4	-3.7	-149.2
3	47.2	4.9	50.1	44.2	-2.9	-128.4
4	65.8	4.9	61.0	21.0	4.8	-60.9

자료: 재경부

국 세

(단위: 10억원, %)

년월중	국 세		내국세	
		전년동기비		전년동기비
2000	92,935	20.5	71106	26.1
2001	95,793	7.9	74027	4.1
2002	103,967	5.0	80832	9.2
2003	114,664	10.8	89859	11.2
2000				
I	25,524	32.9	21238	41.0
II	23,265	40.2	14618	51.3
III	23,786	16.7	20707	12.2
IV	18,360	2.2	14543	6.7
2001				
I	27,741	0.8	21241	0.0
II	21,654	-6.9	14136	-3.3
III	23,111	-2.8	20961	1.2
IV	23,209	26.4	13839	-4.8
2002				
I	26,940	-2.9	21771	2.5
II	24,165	11.6	19394	37.2

자료: 재경부

통화지표(평잔)

(단위: 10억원, %)

년월중	본원통화		신 M1		신 M2		총유동성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0	26,357.0	20.0	183,349.9	24.5	691,393.5	2.2	882,764.3	5.6
2001	29,375.9	11.5	216,442.4	18.0	739,337.0	6.9	967,324.9	9.6
2002	33,579.3	14.3	265,042.4	22.5	824,227.8	11.5	1,092,168.8	12.9
2003	35,754.7	6.5	283,397.4	6.9	888,988.6	7.9	1,187,839.8	8.8
2001								
I	28,192.7	11.7	202,638.6	17.0	715,433.0	5.2	927,827.9	8.2
II	28,595.5	10.6	205,869.5	12.9	724,202.5	5.3	947,156.5	8.2
III	30,760.1	8.8	219,365.8	16.9	751,741.4	8.2	981,802.2	10.3
IV	32,574.9	14.6	237,895.5	25.1	765,971.3	9.0	1,012,512.8	11.5
2002								
I	33,113.8	14.9	256,941.7	26.8	783,232.6	9.5	1,040,461.5	12.1
II	32,995.4	17.0	263,279.6	27.9	813,923.6	12.4	1,076,630.1	13.7
III	34,607.1	15.1	263,798.2	19.3	834,003.4	10.4	1,105,634.8	12.6
IV	35,483.6	10.7	276,149.9	17.0	865,751.6	13.0	1,145,948.9	13.2
2003								
I	35,214.3	7.9	283,414.8	10.3	885,462.8	13.1	1,169,410.2	12.4
II	35,311.3	8.5	277,733.0	5.5	887,843.9	9.1	1,179,537.5	9.6
III	36,244.4	5.7	281,278.2	6.2	888,092.6	6.1	1,194,658.8	7.6
IV	37,978.3	4.7	291,217.8	5.4	894,534.0	3.3	1,207,586.4	5.4
2004								
I	37,973.5	6.9	304,054.5	7.3	908,175.9	2.6	1,229,380.0	5.1
2003								
1	35,464.6	10.7	285,581.0	13.7	880,250.7	13.9	1,162,240.3	13.1
2	36,200.9	6.5	282,153.5	9.5	883,643.0	13.3	1,168,118.1	12.5
3	34,854.8	6.0	282,509.9	7.8	892,494.8	11.9	1,177,872.1	11.7
4	35,625.4	7.6	277,971.1	5.3	890,351.6	10.3	1,177,246.3	10.2
5	35,162.7	5.5	276,666.5	5.2	886,410.8	9.1	1,177,553.5	9.4
6	35,412.2	8.6	278,561.3	5.9	886,769.4	7.9	1,183,812.6	9.1
7	34,976.9	5.6	277,602.5	6.2	886,242.9	7.0	1,191,441.2	8.7
8	35,544.9	6.9	279,840.7	6.9	886,880.8	6.7	1,190,755.5	7.9
9	36,836.1	6.8	286,391.5	6.8	891,154.2	5.8	1,201,779.7	7.5
10	35,519.3	2.8	286,354.8	5.3	885,171.7	3.8	1,198,490.1	5.9
11	36,377.7	4.6	291,032.3	5.6	896,674.7	3.2	1,210,283.1	5.3
12	37,080.9	6.6	296,266.4	5.4	901,755.6	3.0	1,213,986.0	5.0
2004								
1	38,875.7	9.6	302,742.1	6.0	901,048.5	2.4	1,219,452.7	4.9
2	37,664.2	4.0	303,377.3	7.5	906,803.8	2.6	1,227,580.6	5.1
3	37,380.6	7.2	306,044.0	8.3	916,675.5	2.7	1,240,792.7	5.3
4	36,990.4	3.8	305,387.2	9.9	918,104.4	3.1	1,241,191.1	5.4
5	36,980.7	5.2	302,199.8	9.2	921,047.9	3.9	1,248,256.9	6.0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통화지표(말잔)

(단위: 10억원)

년월중	본원통화		신 M1		신 M2		총유동성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0	28,238.1	-0.9	196,714.5	15.3	707,698.9	5.2	911,641.8	7.1
2001	32,826.8	16.3	246,720.5	25.4	764,979.3	8.1	1,017,715.3	11.6
2002	37,987.4	15.7	283,580.8	14.9	872,075.6	14.0	1,155,739.8	13.6
2003	40,749.5	7.3	299,099.4	5.4	897,953.1	3.0	1,210,164.4	4.7
2001								
II	27,674.2	3.7	208,304.6	15.1	737,260.0	7.8	961,911.4	9.4
III	33,107.6	23.9	235,734.3	28.5	768,718.4	10.2	1,004,629.6	12.1
IV	32,826.8	16.2	246,720.5	25.4	764,979.3	8.1	1,017,715.3	11.6
2002								
I	33,825.7	10.0	265,594.1	30.8	805,123.3	11.8	1,069,071.5	14.7
II	33,148.6	19.8	263,885.4	26.7	826,520.5	12.1	1,092,615.3	13.6
III	36,277.9	9.6	268,185.0	13.8	840,325.0	9.3	1,118,240.3	11.3
IV	37,987.4	15.7	283,580.8	15.0	872,075.6	14.0	1,155,739.8	13.6
2003								
I	38,149.9	7.9	276,134.0	10.3	887,799.0	13.1	1,171,186.0	12.4
II	37,312.2	8.5	276,009.5	5.5	881,989.1	9.1	1,179,114.2	9.6
III	38,913.4	5.7	282,404.6	6.2	880,971.9	6.1	1,194,411.3	7.6
IV	40,749.5	4.7	299,099.4	5.4	897,953.1	3.3	1,210,164.4	5.4
2004								
I	38,816.1	6.9	305,745.6	7.3	913,949.2	2.6	1,234,532.8	5.1
2003								
1	36,241.7	19.7	283,236.9	13.6	880,756.1	14.3	1,166,299.6	13.0
2	35,688.0	7.5	280,848.2	7.9	886,044.7	12.8	1,172,767.8	11.9
3	38,149.9	12.8	276,134.0	4.0	887,799.0	10.3	1,171,186.0	9.6
4	35,940.8	7.2	273,012.0	4.6	881,195.8	9.4	1,169,894.6	9.1
5	36,336.7	5.6	279,348.2	7.3	885,498.0	8.5	1,180,174.4	8.8
6	37,312.2	12.6	276,009.5	4.6	881,989.1	6.7	1,179,114.2	7.9
7	35,377.1	6.3	276,267.6	6.5	883,237.5	7.0	1,187,230.3	8.3
8	36,243.2	11.6	282,840.2	7.3	890,077.2	6.5	1,194,167.7	7.5
9	38,913.4	7.3	282,404.6	5.3	880,971.9	4.8	1,194,411.3	6.8
10	37,234.4	13.8	290,277.7	6.3	889,773.1	3.4	1,204,613.6	5.7
11	36,423.1	6.6	293,796.1	5.7	901,002.1	3.2	1,216,632.7	5.4
12	40,749.5	7.3	299,099.4	5.4	897,953.1	3.0	1,210,164.4	4.7
2004								
1	39,481.2	8.9	298,426.5	5.4	896,059.0	1.7	1,215,115.9	4.2
2	37,196.9	4.2	306,979.5	9.3	912,906.9	3.0	1,233,466.2	5.2
3	38,816.1	1.7	305,745.6	10.7	913,949.2	2.9	1,234,103.7	5.4
4	37,933.5	5.5	301,221.1	10.3	920,032.1	4.4	1,239,076.2	5.9
5	37,259.1	2.5	299,991.7	7.4	920,437.9	3.9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자금사정지수

(단위: %, 10억원)

년월중	어음부도율	예금은행 예대율	수익률				주식	
			콜금리	CD(3개월)	회사채 (3년)	국고채 (3년)	주가지수 (KOSPI)	거래대금
2000	0.40	70.0	5.1	7.1	9.4	8.3	734.2	627,132.9
2001	0.38	71.5	4.7	5.3	7.1	5.7	572.8	491,365.4
2002	0.11	76.4	4.2	4.8	6.6	5.8	757.0	742,150.0
2003	0.17	80.0	4.0	4.3	5.4	4.6	680.0	545,062.1
2001								
II	0.39	70.9	5.0	5.8	7.6	6.4	578.0	39,418.0
III	0.31	71.0	4.5	5.0	6.6	5.3	541.9	31,047.8
IV	0.29	72.2	4.0	4.6	6.7	5.3	598.1	51,062.9
2002								
I	0.15	71.8	4.0	4.7	7.0	6.1	792.7	79,166.1
II	0.10	74.9	4.2	4.8	7.0	6.2	840.2	66,140.1
III	0.10	76.8	4.3	4.8	6.3	5.5	723.3	53,258.1
IV	0.10	77.0	4.3	4.9	5.9	5.3	673.9	48,819.1
2003								
I	0.17	81.3	4.3	4.7	5.4	4.8	591.1	34,857.1
II	0.18	80.3	4.1	4.4	5.3	4.3	620.9	47,887.7
III	0.16	80.5	3.8	4.0	5.6	4.4	725.8	46,192.4
IV	0.16	80.5	3.8	4.2	5.4	4.7	782.3	52,750.2
2004								
I	0.14	80.6	3.8	4.1	5.6	4.8	862.8	52,667.3
2003								
1	0.08	81.4	4.3	4.7	5.5	5.0	631.0	36,144.8
2	0.15	81.6	4.3	4.5	5.3	4.7	591.6	29,335.7
3	0.28	80.9	4.2	4.8	5.4	4.8	550.8	39,090.8
4	0.17	82.7	4.2	4.6	5.4	4.6	585.9	54,875.7
5	0.17	79.4	4.1	4.4	5.3	4.3	613.5	40,840.8
6	0.21	78.9	4.0	4.3	5.3	4.1	663.2	47,946.6
7	0.14	80.1	3.8	4.2	5.7	4.4	703.5	49,483.9
8	0.18	80.3	3.7	3.9	5.9	4.6	731.7	46,450.9
9	0.17	81.1	3.7	3.8	5.2	4.3	742.3	42,642.3
10	0.13	81.2	3.7	3.9	5.2	4.3	756.5	52,947.7
11	0.15	80.2	3.8	4.2	5.5	4.8	789.1	53,972.5
12	0.19	80.0	3.8	4.3	5.6	4.9	801.2	51,330.4
2004								
1	0.13	80.6	3.8	4.3	5.7	4.9	845.5	49,491.6
2	0.12	80.1	3.8	4.1	5.6	4.8	867.5	52,324.1
3	0.17	81.2	3.8	3.9	5.4	4.6	875.6	56,186.2
4	0.17	81.3	3.8	3.9	5.3	4.5	907.1	57,918.3
5	0.29	81.7	3.8	3.9	5.1	4.4	798.8	48,865.5
6	0.20		3.8	3.9	4.9	4.3	771.6	44,666.3

자료: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국제수지(I)

(단위: 백만달러)

년월중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
		수출	수입				
2000	12,250.8	16,953.6	176,220.5	159,266.9	-2,847.8	-2,421.3	566.3
2001	8,032.6	13,488.0	151,478.3	137,990.3	-3,872.1	-1,198.1	-385.2
2002	5,393.9	14,777.4	163,414.0	148,636.6	-8,197.5	432.3	-1,618.30
2003	12,320.7	22,161.3	197,637.2	175,475.9	-7,611.2	595.4	-2,824.80
2001							
III	1,185.3	2,964.9	36,271.5	33,306.6	-1,302.1	-123.2	-354.3
IV	442.2	2,170.4	35,821.4	33,651.0	-1,891.3	158.4	4.7
2002							
I	1,400.6	3,259.9	36,215.8	32,955.9	-1,789.4	40.6	-110.5
II	1,569.7	4,450.7	40,831.4	36,380.7	-1,642.3	-859.3	-379.4
III	547.2	3,012.2	41,134.4	38,122.2	-2,464.9	582.1	-582.2
IV	1,876.4	4,054.6	45,232.4	41,177.8	-2,300.9	668.9	-546.2
2003							
I	-1,523.7	1,241.9	44,536.9	43,295.0	-2,295.4	254.6	-724.8
II	2,426.1	5,756.4	46,522.4	40,766.0	-1,674.9	-1,039.8	-615.6
III	3,757.7	6,818.0	49,048.3	42,230.3	-2,648.7	478.9	-890.5
IV	7,660.6	8,345.0	57,529.6	49,184.6	-992.2	901.7	-593.9
2004							
I	6,203.3	8,663.7	60,409.8	51,746.1	-1,882.0	226.2	-804.6
II	7,077.8	10,454.4	64,561.0	54,106.6	-1,505.5	-1,162.9	-708.2
2003							
1	-460.3	771.3	14,934.3	14,163.0	-1,178.3	257.0	-310.3
2	5.2	499.2	14,054.6	13,555.4	-740.2	447.7	-201.5
3	-1,068.6	-28.6	15,548.0	15,576.6	-376.9	-450.1	-213
4	-257.8	1,357.4	15,877.4	14,520.0	-305.4	-1,215.2	-94.6
5	1,080.6	1,646.6	14,865.0	13,218.4	-536.0	211.5	-241.5
6	1,603.3	2,752.4	15,780.0	13,027.6	-833.5	-36.1	-279.5
7	345.7	1,461.6	15,992.0	14,530.4	-1,027.4	162.8	-251.3
8	1,302.6	2,289.2	15,577.3	13,288.1	-977.0	266.7	-276.3
9	2,109.4	3,067.2	17,479.0	14,411.8	-644.3	49.4	-362.9
10	2,436.5	2,940.6	19,176.2	16,235.6	-261.2	-10.1	-232.8
11	2,771.8	2,795.4	18,394.7	15,599.3	-302.3	446.4	-167.7
12	2,452.3	2,609.0	19,958.7	17,349.7	-428.7	465.4	-193.4
2004							
1	2,343.7	2,975.5	18,811.1	15,835.6	-766.2	352.6	-218.2
2	3,063.9	3,176.3	20,319.6	17,143.3	-463.8	594.0	-242.6
3	972.1	2,688.2	21,453.2	18,765.0	-651.9	-720.4	-343.8
4	1,198.3	3,376.0	21,768.7	18,392.7	-453.0	-1,444.8	-279.9
5	3,761.8	3,804.7	21,207.0	17,402.3	-193.4	302.8	-152.3
6	2,224.3	3,380.3	21,629.3	18,249.0	-859.1	-20.9	-276.0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II)

(단위: 백만달러)

년월중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
	투자수지					기타 자본수지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2000	12,110.0	12,725.2	4,284.5	11,997.5	-3,556.8	-615.2	-23,771.2	-589.6
2001	-3,390.8	-2,659.8	1,107.6	6,583.4	-10,350.8	-731	-7,575.8	2934.0
2002	6,251.5	7,338.3	-224.2	708.7	6,853.8	-1,086.80	-11,799.4	154.0
2003	13,128.3	14,530.4	-207.2	17,959.4	-3,221.8	-1,402.10	-25,849.5	400.5
2001								
III	1,584.2	1,841.6	587.4	-579.7	1,833.9	-257.4	-3,748.1	978.6
IV	1,977.7	2,175.5	-240.0	3,625.5	-1,210.0	-197.8	-3,639.2	1219.3
2002								
I	2,922.3	3,096.0	21.2	-1,229.3	4,304.1	-173.7	-3,284.0	-1038.9
II	424.1	782.2	-500.6	-3,665.2	4,948.0	-358.1	-2,079.7	85.9
III	2,142.1	2,376.8	-144.5	1,275.3	1,246.0	-234.7	-4,305.4	1616.1
IV	763.0	1,083.3	399.7	4,327.9	-3,644.3	-320.3	-2,130.3	-509.1
2003								
I	1,996.8	2,312.4	-431.3	-1,121.9	3,865.6	-315.6	-926.3	453.2
II	2,496.5	2,883.0	-193.8	3,801.8	-725.0	-386.5	-5,720.0	797.4
III	3,759.5	4,141.9	-439.9	7,724.4	-3,142.6	-382.4	-8,516.7	999.5
IV	4,875.5	5,193.1	857.8	7,555.1	-3,219.8	-317.6	-10,686.5	-1849.6
2004								
I	2,650.6	3,047.7	-839.8	10,741.4	-6,853.9	-397.1	-8,743.3	-110.6
II	-3,232.6	-2,762.5	2,530.3	-1,105.0	-4,187.8	-470.1	-4,005.5	160.3
2003								
1	1,202.7	1,301.2	110.0	771.9	419.3	-98.5	-206.7	-535.7
2	337.3	433.2	-233.8	-1,547.2	2,214.2	-95.9	-986.0	643.5
3	456.8	578.0	-307.5	-346.6	1,232.1	-121.2	266.4	345.4
4	-748.1	-611.3	-81.0	-1,575.7	1,045.4	-136.8	1,139.4	-133.5
5	1,570.2	1,684.5	-74.7	974.6	784.6	-114.3	-2,668.7	17.9
6	1,674.4	1,809.8	-38.1	4,402.9	-2,555.0	-135.4	-4,190.7	913.0
7	-279.1	-137.3	-205.1	2,527.6	-2,459.8	-141.8	-1,333.4	1266.8
8	3,907.5	4,029.8	151.3	2,215.4	1,663.1	-122.3	-4,054.5	-1155.6
9	131.1	249.4	-386.1	2,981.4	-2,345.9	-118.3	-3,128.8	888.3
10	123.5	227.2	1,079.9	4,193.9	-5,046.6	-103.7	-1,269.9	-1290.1
11	4,287.2	4,383.8	-28.0	2,757.0	1,654.8	-96.6	-6,372.4	-686.6
12	464.8	582.1	-194.1	604.2	172.0	-117.3	-3,044.2	127.1
2004								
1	-22.9	74.1	-255.3	4,129.4	-3,800.0	-97	-2,156.8	-164.0
2	2,216.0	2,322.0	-303.0	3,268.6	-643.6	-106	-5,745.0	465.1
3	457.5	651.6	-281.5	3,343.4	-2,410.3	-194.1	-841.5	-588.1
4	635.9	794.6	84.8	2,677.4	-1,967.6	-158.7	-1,348.0	-486.2
5	-1,652.7	-1,518.8	2,359	-3,810.1	-67.7	-133.9	-1,982.2	-126.9
6	-2,215.8	-2,038.3	86.5	27.7	-2,152.5	-177.5	-675.3	666.8

자료: 한국은행

주요 상품별 수출

(단위: 백만달러)

년월중	상품수출						
	경공업품	중화학공업품					자동차
		철강제품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2000	172,267.5	30,286.2	127,617.1	11,362.5	23,388.5	26,006.2	11,101.6
2001	150,439.1	26,316.2	111,477.2	10,031.4	21,941.9	14,258.9	11,450.8
2002	162,470.5	25,479.5	125,858.3	10,312.1	26,961.5	16,630.7	13,322.3
2003	193,817.4	27,306.4	154,670.4	13,089.8	34,775.8	19,535.2	17,479.8
2001							
II	38,360.0	7,055.1	27,904.2	2,605.9	4,918.1	3,689.1	2,910.7
III	35,605.8	6,690.6	25,878.7	2,419.4	5,341.8	2,756.8	2,991.2
IV	36,349.5	6,044.5	27,569.6	2,317.6	6,338.4	2,940.8	3,073.8
2002							
I	35,656.2	5,454.7	27,866.3	2,218.3	5,917.9	3,717.4	2,852.5
II	40,251.8	6,785.9	30,672.9	2,613.1	6,478.0	4,042.1	2,976.9
III	41,255.1	6,641.8	31,572.9	2,653.7	6,782.9	4,234.5	3,246.3
IV	45,307.4	6,597.1	35,746.2	2,827.0	7,782.7	4,636.8	4,246.6
2003							
I	43,037.9	5,938.3	33,956.8	2,975.0	7,384.3	4,078.0	3,685.7
II	46,058.7	6,726.0	36,538.5	3,146.2	7,521.5	4,181.0	4,389.8
III	47,844.9	6,759.0	38,339.6	3,295.9	9,207.8	5,234.7	3,387.1
IV	56,900.4	7,891.4	45,850.5	3,674.1	10,667.1	6,039.5	6,016.9
2004							
I	59,370.5	7,586.9	48,401.0	4,096.4	11,062.6	5,982.7	5,246.7
II	64,017.8	8,093.1	52,312.1	4,532.9	11,591.5	6,886.4	6,040.5
2003							
1	14,320.3	1,964.4	11,405.0	990.7	2,347.1	1,603.8	1,225.2
2	13,337.8	1,829.5	10,468.0	931.0	2,356.3	1,156.3	1,165.3
3	15,379.8	2,144.4	12,083.7	1,053.3	2,680.8	1,318.0	1,295.2
4	15,721.9	2,208.8	12,445.5	1,040.6	2,470.2	1,351.8	1,578.9
5	14,677.7	2,280.5	11,576.9	1,061.5	2,400.1	1,387.9	1,445.5
6	15,659.1	2,236.8	12,516.1	1,044.1	2,651.1	1,441.3	1,365.4
7	15,435.6	2,343.0	12,044.9	1,137.8	2,913.1	1,612.3	801.9
8	15,378.2	2,145.3	12,372.6	1,033.9	3,031.1	1,739.7	1,054.1
9	17,031.1	2,270.8	13,922.0	1,124.2	3,263.6	1,882.6	1,531.2
10	18,940.7	2,608.7	15,225.5	1,251.3	3,568.0	2,070.9	2,048.7
11	18,525.8	2,479.8	15,057.3	1,175.0	3,517.3	1,984.4	1,925.1
12	19,728.7	2,818.6	15,853.1	1,248.6	3,593.4	1,984.7	2,046.9
2004							
1	18,987.3	2,214.2	15,774.0	1,238.0	3,556.9	1,870.4	1,369.5
2	19,338.8	2,348.9	15,848.8	1,447.8	3,625.8	1,969.5	1,859.4
3	21,218.5	3,031.4	16,949.6	1,505.0	3,900.5	2,179.9	2,017.8
4	21,542.9	2,976.4	17,316.3	1,496.2	3,693.8	2,270.3	2,014.2
5	20,842.7	2,633.5	16,686.8	1,463.4	3,997.2	2,355.1	1,893.9
6	21,684.6	2,506.2	18,372.4	1,580.9	3,911.5	2,268.3	2,134.3

자료: 관세청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달러)

년월중	상품수입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원유	
2000	160,481.0	16,073.7	78,974.8	25,215.6	65,432.5
2001	141,097.8	16,630.7	71,929.3	21,367.8	52,537.8
2002	152,126.2	20,250.9	73,891.4	19,200.3	57,983.8
2003	178,826.7	23,595.2	86,407.2	23,081.6	68,824.3
2001					
III	34,155.0	4,211.0	17,404.2	5,129.5	12,539.8
IV	34,341.6	4,627.0	16,762.7	4,403.8	12,951.9
2002					
I	33,787.7	4,439.1	17,014.0	4,302.9	12,334.6
II	37,192.0	4,917.4	18,081.9	4,686.5	14,192.7
III	38,884.1	5,239.4	18,573.7	4,991.1	15,070.9
IV	42,262.4	5,655.1	20,221.7	5,219.8	16,385.5
2003					
I	44,218.2	5,374.1	22,363.5	6,450.3	16,480.5
II	41,697.0	5,464.8	20,154.4	4,845.6	16,077.8
III	42,961.8	5,629.9	20,666.8	5,390.1	16,665.2
IV	49,921.9	7,111.5	23,217.7	6,407.5	19,592.7
2004					
I	52,585.7	6,861.6	25,654.5	6,275.7	20,069.6
II	55,288.3	6,887.6	27,531.3	6,755.6	20,869.5
2003					
1	14,492.0	1,810.4	7,548.5	2,114.0	5,133.1
2	13,857.6	1,669.5	6,888.8	1,936.3	5,299.4
3	15,868.6	1,894.3	7,926.2	2,400.0	6,048.1
4	14,754.8	1,874.3	7,245.3	1,820.4	5,635.3
5	13,519.8	1,798.9	6,712.0	1,676.3	5,008.8
6	13,422.4	1,791.7	6,197.1	1,348.9	5,433.7
7	14,882.5	1,832.1	7,448.6	2,097.8	5,601.8
8	13,534.5	1,862.9	6,368.5	1,490.5	5,303.1
9	14,544.9	1,934.9	6,849.7	1,801.8	5,760.3
10	16,517.4	2,341.5	7,567.0	1,955.4	6,609.0
11	15,741.9	2,184.5	7,425.7	2,288.9	6,131.8
12	17,624.5	2,578.7	8,194.3	2,142.3	6,851.4
2004					
1	16,124.0	2,157.1	8,055.3	1,843.4	5,911.7
2	17,392.0	2,000.8	8,702.3	2,471.0	6,688.9
3	19,050.2	2,703.0	8,878.9	1,958.7	7,468.2
4	18,805.1	2,619.3	9,178.2	2,105.7	7,007.6
5	17,854.4	2,235.7	8,893.5	2,248.6	6,725.2
6	18,560.7	2,029.2	9,394.1	2,339.2	7,137.5

자료: 관세청

수출·입 단가

(단위: 2000=100.0)

년월중	총계	수출단가			총계	수입단가			
		경공업	중화학	반도체		소비재	원자재	원유	자본재
2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	86.9	91.9	85.6	48.1	91	95	91.4	88.4	89.2
2002	83.1	90.5	81.2	39.2	87.5	96	87.5	86.4	84.7
2003	85.1	92.6	82.2	29.2	95.6	100.6	100.2	102.1	82.4
2001									
II	88.9	93.5	87	54.7	92.8	95.5	94.8	94.3	88.8
III	84.3	90.3	82.2	30.9	90.8	94.7	91.7	92	88.1
IV	80.9	88.5	79.8	26.7	84.6	93.1	83	76.6	84.8
2002									
I	82.9	88.3	81.6	49.9	81.1	96.1	79.2	70	80.8
II	83.9	90.3	82.2	45.2	87.4	96	87.1	88.4	84.8
III	82.7	91.2	80.4	32.9	90.4	96.6	90.9	92.1	87.1
IV	82.6	91.9	80.2	28.7	91.1	95.2	92.8	95.2	86
2003									
I	84.6	92.5	80.9	26.7	97.4	100.4	101.7	107.5	85.1
II	83.6	93.3	80.9	27.2	93.6	100.4	97.7	97.3	81.6
III	86.2	91.8	84	30.9	93.9	98.2	99.1	100	80.3
IV	86.8	92.9	84.3	31.6	96.8	103	101.9	102.6	82.8
2004									
I	89.7	95.7	86.7	27	103.3	107.5	111.3	111.6	86.2
II									
2003									
1	84.7	91.9	81.5	30.7	94.7	98.9	97.7	101	83.9
2	84.8	92.8	80.5	23.4	98.4	103.5	102.5	109.2	86.2
3	84.4	92.8	80.6	25.9	99.3	98.4	105.3	112.8	85
4	83.9	92.8	81.3	28.1	96.2	99.7	100.8	103.3	84.1
5	83.4	94.3	80.4	26.8	92.4	100	95.8	94.6	80.6
6	83.6	92.7	80.9	26.7	92.5	100.6	96.5	95.2	80.1
7	84.6	92.1	82.1	30.7	94.2	102.1	98	97.3	80.6
8	85.2	91.6	82.8	31	93.6	100.5	99.3	101.7	78.8
9	88.8	91.7	87.1	31	93.7	91.7	100	100.9	81.4
10	85.1	92.4	82.6	29.9	93.4	100.9	98.6	98.2	79
11	86.9	93.6	84.3	30.3	97.1	102.4	101.7	103.6	84.1
12	88.1	92.7	85.7	34	99.5	105.7	104.9	106.1	85.4
2004									
1	91.1	95.6	88.4	29.6	103.5	105.1	108.5	110.6	90.3
2	89.3	95.5	86.2	25.4	103	108.7	112	111.8	84.3
3	88.9	96.1	85.6	25.9	103.6	108.7	113.2	112.2	84.9
4	90.6	96.4	87.5	30.7	106.9	110.6	117.5	117.3	86.7
5	91.7	95.3	88.3	31.0	106.5	108.8	120.7	120.8	82.7

자료: 한국은행

주요 지역별 수출·입

(단위: 백만달러)

년월중	일본		중국		미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0	20,466.0	31,827.9	18,454.5	12,798.7	37,610.6	29,241.6	
2001	16,505.8	26,633.4	18,190.2	13,302.7	31,210.8	22,376.2	
2002	15,143.2	29,856.2	23,753.6	17,399.8	32,780.2	23,008.6	
2003	17,276.1	36,313.1	35,109.7	21,909.1	34,219.4	24,814.1	
2001							
	II	4,266.6	6,573.1	4,787.7	3,257.1	7,608.9	5,409.1
	III	3,714.9	6,520.1	4,536.7	3,410.0	7,857.8	5,265.6
	IV	3,723.9	6,546.5	4,505.9	3,620.3	7,683.0	5,233.8
2002							
	I	3,315.0	6,179.9	4,563.2	3,607.2	7,509.7	5,160.2
	II	3,690.7	7,307.6	5,637.6	4,144.8	7,971.5	5,887.6
	III	3,834.2	7,807.4	6,153.4	4,532.5	8,198.7	6,006.5
	IV	4,303.3	8,561.3	7,399.5	5,115.3	9,100.3	5,954.4
2003							
	I	3,993.5	8,486.8	7,329.5	4,838.6	7,745.5	6,272.3
	II	4,077.3	8,410.9	7,646.0	5,191.2	8,245.7	6,315.3
	III	4,117.3	8,963.9	9,327.2	5,518.3	8,122.2	5,751.6
	IV	5,088.5	10,446.1	10,819.2	6,356.8	10,112.4	6,471.7
2004							
	I	5,204.0	11,217.8	11,043.2	6,215.9	9,279.0	6,548.7
	II	5,420.2	11,533.9	12,503.8	7,228.6	11,164.0	7,224.2
2003							
	1	1,396.0	2,526.3	2,290.0	1,666.7	2,612.4	2,061.1
	2	1,225.9	2,915.3	2,379.6	1,397.5	2,383.7	2,046.9
	3	1,371.6	3,045.1	2,659.5	1,774.4	2,749.3	2,164.3
	4	1,406.2	3,019.7	2,560.5	1,827.4	2,807.8	2,129.0
	5	1,351.4	2,630.3	2,475.2	1,702.1	2,633.4	1,984.9
	6	1,319.6	2,760.9	2,609.9	1,661.8	2,803.8	2,201.5
	7	1,382.3	3,054.3	2,965.9	1,866.0	2,498.6	2,018.8
	8	1,298.5	2,825.1	3,079.4	1,759.2	2,585.6	1,831.2
	9	1,437.7	3,084.5	3,278.5	1,893.1	3,035.4	1,901.6
	10	1,725.0	3,610.1	3,543.2	2,142.2	3,427.4	2,231.4
	11	1,702.4	3,167.7	3,646.8	1,998.6	3,225.8	2,027.2
	12	1,664.8	3,664.4	3,830.1	2,211.2	3,472.9	2,211.8
2004							
	1	1,557.0	3,288.1	3,319.2	2,053.5	2,646.0	1,918.6
	2	1,845.0	3,774.1	3,716.8	1,809.1	3,137.5	2,178.8
	3	1,918.1	4,156.5	4,037.1	2,354.4	3,538.2	2,452.2
	4	1,849.4	4,048.0	4,099.4	2,435.1	3,549.3	2,273.8
	5	1,883.6	3,564.2	4,295.3	2,424.6	3,570.7	2,406.9
	6	1,722.6	3,921.3	4,112.4	2,366.9	4,059.3	2,542.9

자료: 한국은행

선진국의 환율

년월중	일본 (¥/US\$)		영국(UK) (US\$/P)		EURO (US\$/EURO)		
	기말(EOP)	평균(AVG)	기말(EOP)	평균(AVG)	기말(EOP)	평균(AVG)	
2000	114.36	107.79	1.4931	1.5157	0.9425	0.9238	
2001	131.38	121.53	1.4502	1.4408	0.8843	0.8961	
2002	118.52	125.19	1.6037	1.5033	1.0475	0.9457	
2003	106.99	115.87	1.7777	1.6351	1.2545	1.1322	
2001							
	II	124.67	122.63	1.4160	1.4216	0.8494	0.8738
	III	119.51	121.47	1.4735	1.4404	0.9100	0.8929
	IV	131.38	123.70	1.4502	1.4423	0.8843	0.8950
2002							
	I	132.78	132.38	1.4258	1.4273	0.8715	0.8773
	II	119.64	126.92	1.5315	1.4615	0.9908	0.9186
	III	122.75	119.24	1.5611	1.5494	0.9811	0.9834
	IV	118.52	122.49	1.6037	1.5713	1.0475	1.0001
2003							
	I	119.94	118.99	1.5734	1.6028	1.0784	1.0726
	II	119.74	118.54	1.6503	1.6178	1.1419	1.1370
	III	111.79	117.50	1.6626	1.6115	1.1574	1.1262
	IV	106.99	108.83	1.7777	1.7054	1.2545	1.1900
2004							
	I	105.84	107.35	1.8263	1.8400	1.2178	1.2500
	II	108.32	109.66	1.8082	1.8082	1.2093	1.2052
2003							
	1	118.59	118.71	1.6469	1.6146	1.0814	1.0612
	2	117.68	119.55	1.5796	1.6110	1.0749	1.0775
	3	119.94	118.75	1.5734	1.5831	1.0784	1.0796
	4	119.64	119.84	1.5964	1.5743	1.1115	1.0864
	5	119.25	117.33	1.6524	1.6246	1.1785	1.1601
	6	119.74	118.40	1.6503	1.6594	1.1419	1.1666
	7	120.30	118.61	1.6153	1.6262	1.1343	1.1386
	8	116.73	118.74	1.5780	1.5943	1.0985	1.1152
	9	111.79	114.90	1.6626	1.6126	1.1574	1.1241
	10	108.66	109.47	1.6959	1.6768	1.1629	1.1709
	11	109.63	109.19	1.7140	1.6890	1.1988	1.1706
	12	106.99	107.84	1.7777	1.7489	1.2545	1.2278
2004							
	1	105.75	106.47	1.8169	1.8186	1.2474	1.2599
	2	109.10	106.63	1.8624	1.8662	1.2488	1.2631
	3	105.84	108.86	1.8263	1.8267	1.2178	1.2264
	4	109.95	107.46	1.7728	1.8068	1.1957	1.2003
	5	110.37	112.27	1.8356	1.7846	1.2239	1.2995
	6	108.32	109.42	1.8082	1.8300	1.2093	1.2146

자료: 한국은행

아시아 주요국의 환율

년월중	한국 (₩/US\$)		중국 (Yuan/US \$)		홍콩 (HK\$/US\$)		싱가포르 (SP\$/US \$)	
	기말(EOP)	평균(AVG)	기말(EOP)	평균(AVG)	기말(EOP)	평균(AVG)	기말(EOP)	평균(AVG)
2000	1,264.5	1,131.1	8.2774	8.2780	7.800	7.792	1.7335	1.7250
2001	1,313.5	1,291.0	8.2768	8.2770	7.798	7.800	1.8480	1.7920
2002	1,186.2	1,250.7	8.2773	8.2770	7.799	7.799	1.7351	1.7900
2003	1,192.6	1,191.9	8.2767	8.2770	7.764	7.787	1.7035	1.7420
2001								
III	1,309.6	1,294.1	8.2768	8.2769	7.799	7.800	1.7660	1.7768
IV	1,313.5	1,291.7	8.2768	8.2769	7.798	7.799	1.8480	1.8264
2002								
I	1,325.9	1,319.8	8.2774	8.2768	7.800	7.799	1.8420	1.8333
II	1,201.3	1,269.1	8.2771	8.2771	7.800	7.800	1.7675	1.8043
III	1,227.8	1,197.5	8.2771	8.2768	7.800	7.800	1.7785	1.7577
IV	1,186.2	1,220.4	8.2773	8.2771	7.799	7.799	1.7351	1.7680
2003								
I	1,254.6	1,202.5	8.2771	8.2771	7.799	7.799	1.7704	1.7452
II	1,193.0	1,208.8	8.2774	8.2770	7.798	7.799	1.7567	1.7486
III	1,150.1	1,174.7	8.2770	8.2771	7.751	7.795	1.7303	1.7511
IV	1,192.6	1,181.8	8.2767	8.2769	7.764	7.756	1.7035	1.7245
2004								
I	1,146.6	1,170.6	8.2771	8.2800	7.796	7.780	1.6835	1.7000
II	1,155.5	1,161.9	8.2766	8.2769	7.799	7.797	1.7166	1.7029
2003								
1	1,170.1	1,178.4	8.2767	8.2768	7.800	7.799	1.7310	1.7350
2	1,193.7	1,192.0	8.2774	8.2772	7.799	7.799	1.7358	1.7462
3	1,254.6	1,236.7	8.2771	8.2772	7.799	7.799	1.7704	1.7544
4	1,215.3	1,230.5	8.2770	8.2771	7.799	7.800	1.7761	1.7764
5	1,205.9	1,199.7	8.2768	8.2769	7.799	7.799	1.7323	1.7333
6	1,193.0	1,193.5	8.2774	8.2771	7.798	7.799	1.7567	1.7349
7	1,179.7	1,180.4	8.2773	8.2773	7.799	7.799	1.7575	1.7539
8	1,178.2	1,178.4	8.2771	8.2770	7.799	7.799	1.7517	1.7528
9	1,150.1	1,164.1	8.2770	8.2772	7.751	7.785	1.7303	1.7461
10	1,183.1	1,167.9	8.2767	8.2768	7.761	7.740	1.7376	1.7337
11	1,202.1	1,186.0	8.2770	8.2769	7.767	7.763	1.7235	1.7288
12	1,192.6	1,191.9	8.2767	8.2770	7.764	7.764	1.7035	1.7110
2004								
1	1,173.7	1,182.2	8.2768	8.2769	7.777	7.766	1.6938	1.6972
2	1,176.2	1,166.2	8.2769	8.2771	7.784	7.775	1.6977	1.6864
3	1,146.6	1,165.1	8.2771	8.2771	7.796	7.793	1.6835	1.7015
4	1,173.3	1,152.0	8.2769	8.2769	7.800	7.797	1.7040	1.6834
5	1,160.1	1,176.2	8.2769	8.2771	7.795	7.797	1.6991	1.7121
6	1,155.5	1,158.6	8.2766	8.2767	7.799	7.797	1.7166	1.7127

자료: 한국은행

연구진

□ 연구 및 편집 총괄

이인실 (경제분석실장)
남상호 (거시경제분석팀장)
김기승 (경제정책분석팀장)

□ 집필자

조성원 (거시경제분석팀 경제분석관)
강명주 (거시경제분석팀 경제분석관)
구현우 (거시경제분석팀 경제분석관)
김은경 (세입세제분석팀 경제분석관)
전승훈 (재정정책분석팀 경제분석관보)

□ 연구지원

하창훈 (거시경제분석팀 경제분석관)
이성호 (거시경제분석팀 경제분석관보)
김지애 (경제분석실장실 사무보조원)
백승미 (거시경제분석팀 사무보조원)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

발 간 일 2004년 8월 9일
편 집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발 행 인 최 광
발 행 처 **국회에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Tel 02·2070·3114
인 쇄 처 성지문화사 (Tel 02·2273·5090)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팀 (Tel 02·788·3775)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국회예산정책처, 2004

NABO Economic Outlook

